

# 濟州道 農外所得 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金範國\* 金昌中\*\* 金炯吉\*\*\*

## 目 次

要約 및 結論	8
第Ⅰ章 農外所得의 概念	20
第1節 農家經濟活動의 區分과 農外活動	
第2節 農外活動의 必要와 重要性	
第3節 農外所得 概念의 再定立	
第Ⅱ章 濟州道 農家의 農外所得 實態	24
第1節 調查標本과 研究資料의 性格	
第2節 農外所得의 構造	
第Ⅲ章 韓國, 日本, 台灣 및 濟州道의 農外所得 比較	33
第1節 農外所得 評價方法	
第2節 農外所得의 構造	
第Ⅳ章 濟州道 農村副業團地의 經營實態와 育成方案	38
第1節 農村副業團地의 推進施策과 造成現況	
第2節 農村副業團地의 類型과 特性	
第3節 農村副業團地의 生産·販賣實態와 問題點	
第4節 農村副業團地의 經營合理化 方案	
第Ⅴ章 濟州 特産物의 市場與件 分析과 特産物 開發方向	56
第1節 調查의 概要	
第2節 特産物에 대한 購買行動 分析	
第3節 特産物 開發 可能性 檢討(자리짓계품을 中心으로)	
第4節 特産物의 生産 및 流通上의 問題點과 對策	
第Ⅵ章 濟州道 加工工場의 現況과 擴充可能性 模索	74
第1節 調查의 概要	
第2節 加工工場의 現況	
第3節 加工工場의 擴充可能性	
第Ⅶ章 濟州道 農工地區의 開發 可能性	82
第1節 濟州道 農工地區 開發의 基本方向	
第2節 農外所得源으로서의 農工地區 造成	
第3節 農民들의 工場就業 可能性	
第4節 農工地區造成時 立地 妥當性 檢討基準	
第5節 農工地區造成을 위한 提言	

\*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營學科 教授

\*\*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助教授

\*\*\*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營學科 助教授

## 要約 및 結論

### 1. 農外所得의 概念

#### (1) 慣行的 農外所得의 概念과 問題點

- ① 概念： 農家所得에서 農業所得을 공제한 나머지
  - 韓國： 兼業所得 ( 임·어업所得 포함 ) + 사업 이외의 소득 + 이전수입
  - 日本： 農外事業所得 ( 겸업소득 ) + 사업 이외의 소득 ( 賃金 및 봉급 + 재산소득 )
  - 台灣： 兼業所得 ( 임·어업소득 제외 ) + 賃金 및 봉급 + 財產所得 + 이전수입
- ② 問題點
  - 우리나라의 農外所得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됨.
  - 農外活動의 결과라 할 수 없는 所得이 포함됨 ( 재산소득, 이전수입 및 費用 농업 노동임금 등 )
  - 農外所得率 ( 농외소득 / 농가소득 × 100 ) 을 農家の 農外活動 指標로 사용키 곤란함.
  - 비농업 지향 兼業農家 ( 주로 영세농 ) 의 所得增大政策樹立을 위한 자료 제시 미흡.

#### (2) 새로운 農外所得의 概念

- ① 개념： 일정기간 동안에 農家 가구원의 農外事業과 農外就業活動으로부터 얻어지는 所得의 합계
- ② 관행적 農外所得 개념과의 관계： 새로운 農外所得 = 관행적 農外所得 - 財產所得 - 이전수입 - 기타소득
- ③ 장점：
  - 農家 중심의 農業政策 ( farmhousehold-oriented agricultural policy ) 형성에 기여
  - 農外所得 증대 시책 수립에 기여
  - 農家の 農外活動 지표로서 農外所得率 ( 農外所得 / 農家所得 × 100 ) 사용이 적합

### 2. 濟州道 農家の 農外所得 實態와 構造

#### (1) 地帶別 農外所得 실태와 구조

- 農家 平均 農外所得은 農家所得의 23.9%인 1,814천원 ( 86년 현재 ) 이며, 農外所得率은 영세농만이 약 60% 수준이고 나머지 계층은 약 20% 내외였음.

- 土地 勞働費의 감소와 農外活動 강화 욕구 증대
  - 중·대농의 商工業 등 겸업활동 강화
  - 대농층에서 2차 소득자의 農外就業 (상용직)
- } 등에 기인됨

○ 해안지대 農家の 農外所得率은 中山間地帶 農家에 비하여 12.2% (포인트) 높은 29.4% 였음.

- 해안지대 農家の 農外事業活動 (수산업 및 상·공업) 에 기인 (농외소득중 겸업소득 비중 : 41.7%)

○ 중산간 지대의 경우 영세소농일수록 農外所得率이 뚜렷이 높아 農外所得이 농가 계층간 소득형평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

- 農業勞働生産性의 상대적 격차 완만 (영세농은 평균의 60.3%) 에 기인함.

- 農外所得중 농외취업소득이 지배적 (90.6%) 에 기인함.

○ 그러나 해안지대는 영세농일수록 農業勞働生産性은 크게 낮아지고 반면에 영세농을 제외한 소·중·대농의 農外所得率은 20~30% 수준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農外所得이 농가계층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지대간 농가소득의 형평화를 위해 해안지대 영세소농의 所得源 개발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됨.

## (2) 地域別 農外所得 構造와 實態

○ 도시주변 지역인 濟州市와 西歸浦市 農家가 상대적으로 農外活動을 많이 함.

- 農外活動 農家 : 제주시 52.9%, 서귀포시 54.3%, 한림지역 37.2%, 성산포지역 45.9%

○ 과수작 전업의 영농 형태가 지배적인 서귀포시 農家の 農外活動은 근대적 부문인 商工業의 活動과 상용직의 農外就業活動으로 되고 있음 (제주시 농가와 대조됨).

○ 한림 및 제주시 지역 農家の 農外活動은 수산업활동과 임시직의 農外就業活動이 상대적으로 많음.

○ 성산포지역 농가의 農外活動은 수산업, 상공업 등 겸업활동이 지배적임.

( 農外所得중 겸업소득 비중이 59.8% )

○ 農家の 農外所得 수준은 성산포지역, 서귀포시, 제주시, 한림지역 농가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농외소득율은 다각영농을 행하는 성산포지역이 45.1%, 제주시가 28.4%, 한림지역이 26.9%의 순으로 높고 과수작 전업의 영농을 행하는 서귀포시 농가가 14.3%로 가장 낮았음.

○ 그러나 지역간 소득격차는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해 제주시 68.4%, 서귀포시 186.7%, 한림지역 66.8%, 성산포지역 74.3%로서 농외소득이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해 다각영농을 행하는 한림지역, 제주지역 및 성산포지역 농가의 所得源開發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됨.

### 3. 韓·日·台灣과 濟州道の 農外所得 構造 比較

#### (1) 比較方法

韓國의 慣行的 農外所得 概念에 의해 각국의 공식자료를 수정하여 비교함.

#### (2) 濟州道 農外所得 構造의 特徵

○ 農外所得 의존도의 상대적 저위: 제주도: 32.1%, 한국('84): 33.1%, 일본('84): 84.2%, 대만('84): 68.3%.

○ 農外所得중 겸업소득과 농외취업소득이 지배적임.

— 한·일·대만과 濟州道の 農外所得 構造 比較

단위: %

국가 및 지역	농외소득원 겸업소득	사업 이외의 소득			이전수입	계
		임금및봉급	재산소득	소 계		
제주도 (1986)	23.4	52.5	4.7	57.2	19.4	100.0
한국 (1984)	10.4	38.6	2.6	41.2	48.4	100.0
일본 (1984)	5.7	65.1	4.8	69.9	24.1	100.0
대만 (1984)	10.9	62.1	14.7	76.8	12.3	100.0

○ 특징의 원인

— 영세소농의 水産業 활동 기회

— 대규모의 농촌취락, 육지부에 비해 높은 농촌구매력,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농촌입지, 농업의 기계화 및 자본화 —

- {
- 중·대농층의 겸업활동 촉진
  - 영세소농의 농외취업기회 제공

—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1일 통근원 형성

農業부문의 상대적인 高所得 기회 (감귤·겨울채소·바나나 등)

재촌탈농 (在村脫農)  
의 유인제공

농외취업소득 증가  
이전소득 감소

— 핵가족제도와 균분상속의 전통 — 송금보조 감소  
육지부의 경지정리·추곡수매 등에 의한 정부보조  
일본의 영세소농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제주도 농가의 이전 수입비중을 상대적으로 저위에 머물게 함.

(3) 規模別 農外所得과 農家所得

○ 제주도의 규모별 農外所得 의존도는 영세농층만이 64.6%로 비교적 높으며, 소·중·대 농층에서는 경영경지의 規模가 클수록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육지부와 日本은 규모가 클수록 農外所得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져 農外所得이 농가 계층간의 소득격차 완화에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큼.

\* 國別로 본 규모별 農外所得 의존도 비교

국 가 및 지역		규모 별						규모별소득의상대격차(%)			
		0.5 미 만 (A)	0.5-1.0 (B)	1.0-1.5 (C)	1.5-2.0 (D)	2.0 이 상 (E)	평균	A/D ×100	B/D ×100	C/D ×100	E/D ×100
제주 도 (1986)	농가소득(천원)	4,401.1	6,481.2	8,723.4	9,337.8	9,862.8	7,588.3				
	농외소득(천원)	2,841.4	2,143.9	2,459.6	2,492.1	2,567.0	2,432.9	47.13	69.41	93.42	105.62
	농외소득의존도(%)	64.6	33.1	28.2	26.7	26.0	32.1				
한 국 (1984)	농가소득(천원)	3,904.1	4,698.8	5,556.8	6,940.0	8,637.6	5,549.1				
	농외소득(천원)	2,411.1	2,059.7	1,503.4	1,651.9	1,357.8	1,849.8	56.26	67.71	80.07	124.46
	농외소득의존도(%)	61.8	43.8	27.1	23.8	15.7	33.3				
일 본 (1984)	농가소득(천 $\yen$ )	6,846.0	6,801.5	6,408.0	6,634.2	7,058.5	6,749.9				
	농외소득(천 $\yen$ )	6,721.5	6,203.4	5,143.0	4,492.5	3,604.6	5,684.6	103.19	102.52	96.59	106.40
	농외소득의존도(%)	98.2	91.2	80.3	67.7	51.1	84.2				

주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의 소득 + 이전수입임.

○ 따라서 중농층이라 할 수 있는 1.5-2.0 ha 계층의 소득에 비해 영세농층의 소득수준은 제주도 가장 낮게 나타남 → 계층간 소득형평화를 위해 특히 영세농층의 소득원 개발이 주요 정책과제로 됨.

4. 濟州道 農村副業團地 經營實態와 育成方案

(1) 調査의 概要

1986년 현재 제주도 農村副業團地로 지정된 10개 단지를 7월-9월 사이에 직접 방문하여 부업단지 대표, 부업단지 총무, 부업제품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에 의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2) 副業團地 類型의 分析

○ 經營類型

經營類型	副業園地
전업형 ( 2개소) 가내수공업형 ( 8개소)	띠제품단지, 털구슬제품단지 수수비단지, 죽제품단지, 냉출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목각 제품단지, 무우말랭이 3개 단지

○ 稼動實態類型

稼動實態類型	副業園地
이주우수 ( 2개소) 우 수 ( 1개소) 보 통 ( 5개소) 부 실 ( 2개소)	털구슬제품단지, 띠제품단지 표선 가시무우말랭이단지 수수비단지, 목각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합덕 무우말랭이 단지, 냉출제품단지 남원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 죽제품단지

(3) 副業園地에 對한 參與農家의 態度分析

副業園地에 대한 副業園地 참여농가의 態度分析에서는 70% ( 14호)가 현재 부업단지 참여로 農外所得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가 20% ( 4호)로 나타났다. 또한 75% ( 15호) 농가가 앞으로 副業園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10개 단지중 8개 단지 대표들이 활성화를 위해 기술 및 디자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副業製品 생산보다 農業生産에 전념해야겠다고 응답한 農家가 전체의 35%나 되었다.

(4) 副業園地製品 生産 및 販賣實態 分析과 問題點

○ 10개 단지의 戶當 平均 所得이 147만 5천원인 副業園地製品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곳은 4개 단지 ( 죽제품단지, 목각제품단지, 냉출제품단지, 남원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이며 동일한 곳이 1개 단지 ( 수수비단지 ), 증가하고 있는 곳이 5개 단지 ( 띠제품단지, 털구슬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표선과 합덕 무우말랭이단지)이며, 民俗工藝品業種의 생산상 가장 큰 문제점은 제품의 원료 조달상의 애로사항 ( 냉출제품단지, 죽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과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미흡으로 분석되었다.

○ 副業園地製品의 유통 경로 형태는 부업제품 생산농가 → 소비자, 부업제품 생산농가 → 중간상 → 소비자, 부업제품 생산농가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 3유형이 있다.

○ 현재 제품 판매가 용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단지는 5개 단지 ( 띠제품단지, 털구슬제품단지, 표선 무우말랭이단지, 냉출제품단지, 수수비단지)이며, 판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는 4개 단지 ( 죽제품단지, 목각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남원 의귀 무우말랭이단지)이다.

○ 판매대금 결제방법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상판매인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다.

(5) 副業團地 活性化를 위한 課題와 解決方案

課 題	解 決 方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副業團地 선정시 기술 타당성 검토와 기술지도의 실제화</li> <li>○ 副業團地 지정후의 經營指導活性化</li> <li>○ 民俗工藝品 生産 副業團地의 기술 지도 및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li> <li>○ 副業團地 대표자 운영 능력 육성과 그에 따른 교육</li> <li>○ 副業團地製品的의 판매 지원</li> <li>○ 副業團地 원료조달 문제</li> <li>○ 副業團地 기술 및 경영지도에 관련된 재정지원 확보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공예품인 경우 현행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타부서로 이관하든지 또는 副業團地 經營指導委員會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담당하도록 함(부지사, 농협지부장, 농촌진흥청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li> <li>○ 副業團地 經營指導委員會 經營指導部에서 담당.</li> <li>○ 副業團地 經營指導委員會 제품 디자인개발부 담당</li> <li>○ 전국 우수 副業團地 견학과 副業團地 經營指導部에서 관련 교육 실시</li> <li>○ 副業製品 및 특산물 공판장 설치(관광코스 지정) 副業製品 홍보 강화(관광 성수기에 제주 MBC, 제주 KBS, 제주신문 이용 및 道 홍보용 팸플렛에 부업단지 제품 첨가). 副業團地 조합의 판매촉진 활동 副業製品중 공공기관에서 수매가능 품목은 수의계약 체결 시행 副業製品의 상표설정 및 개발보호 토산품점 진열시 副業製品 설명서 사용 권장</li> <li>○ 원료의 자연채취 副業團地에 대해 채취장소 확장을 위한 입산 허용 방안 검토</li> <li>○ 副業團地 및 특산물 공판장 설치의 이익금중 일부 적립하여 활용</li> </ul>

5. 濟州 特産物의 市場與件分析과 特産物 開發方向

(1) 調査의 概要

'86년 8월 - 10월까지 特産物의 주요 시장인 내국인 觀光客 220명(205매)과 외국인 觀光客(일본인) 80명(75매) 총 300명(280매)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 주요 구입 품목과 그와 관련된 구매행동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민속공예품은 農外所得增大와 관련된 副業團地製品 및 주요 土産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特産物에 대한 購買行動 分析

① 內國人 觀光客

- 內國人 觀光客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民俗工藝品은 돌하르방이 90명(43.9%), 산호

제품이 51명 (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 農水産物 중에서는 꿀의 구입이 총 104명으로 50.7% (로얄제리가 56명으로 27.3%, 꿀이 48명으로 23.4%), 파인에플이 91명 (44.4%), 표고버섯이 28명 (13.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관광객 158명중 44.9%에 해당하는 71명과 여자중의 33명 (34.7%)이 꿀 또는 로얄제리를 구입하였고, 신혼부부중에는 71%에 해당하는 76명이 꿀이나 로얄제리를 구입하여 꿀 또는 로얄제리가 이 시기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산물로 분석되었다.

○ 特産物 구입 이유로는 전체의 62.4%인 128명이 선물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혼부부 107명중 78.5%에 해당하는 84명도 선물을 하기 위해 特産物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 購入商店 선택 이유로는 처음 온 관광객 109명중 49.5%와 신혼부부중 58.9% (63명)이 택시 기사의 추천이나 관광회사의 소개·알선으로 이뤄졌는데 신혼부부중 65.1%가 特産物의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 特産物에 대한 불만요인 분석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59.8%였고, 여자들이 (63.2%) 남자들보다 (58.2%)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8.0%, 20대가 61.2%로 젊은층이, 여행횟수별로는 3회 이상이 68.6%, 2회가 63.0%로 제주에 여행은 횟수가 많을수록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 디자인에 대해서는 29.5%의 觀光客이 좋지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좋다고 응답한 관광객은 19.5%에 불과했으며, 포장에 대해서도 좋다고 응답한 관광객이 15.2%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濟州에 있는 대부분의 土産品店이 價格表示 指定業所임에도 불구하고, 價格表示가 일부만 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75.1%나 되었으며, 土産品의 정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관광객은 95.7%나 되었다.

② 外國人 觀光客 (日本 觀光客)

○ 日本 觀光客들이 가장 선호하는 特産物은 인삼이 38명 (50.7%), 돌하르방 16명(21.3%)이었으며, 特産物 구입 이유는 47명 (62.7%)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였고, 주요 구입장소는 일반 면세점이 48%, 호텔내 상점과 숙소 근처가 각각 24%로 나타났다.

○ 特産物의 價格에 대해선 48%가 싸다고 느끼고 있었고, 디자인과 포장·품질에 대해서 좋다고 느낀 사람은 각각 26.7%와 29.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來道한 日本人 觀光客들의 주요 연령층은 75명중 50대가 46.7%, 40대가 18.7%, 30대가 21.3%로 40세 이상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직업 분포중 가장 많은 것이 회사원 (50.7%)이었다. 또한 처음 온 사람이 70.7%였으며, 2회 이상이 29.3%였다.

(3) 特産物 開發 可能性 檢討 (자리젯 제품을 中心으로)

○ 자리젯 제품의 特産物로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그에 대한 特産物로서의 개



발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 및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標的市場 선정 가능성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 特産品의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 내용 중 特産物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체 응답자의 73%가 그 지방의 향토성을 내포한 것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중 여행횟수가 많을수록(3회 이상이 77.8%) 더욱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자리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잡히는 어종이므로 이와 관련된 製品은 消費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市場性 分析에서 것갈류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8%나 되었고, 특히 50대가(68.2%) 좋아하고 있으며, 자리젓을 먹어본 경험은 여행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계층이 3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리젓 製品이 판매된다면 구입하겠다고 희망한 응답자가 136명중 36.0%나 되었으며, '84년부터 안덕면 사계리에서 생산된 자리젓이 공항 토산품점을 통해 2년간 매년 432kg씩 판매된 실적이 있어, 자리젓에 대한 조리법을 적은 설명서 및 양념을 첨가하여 선물용으로 적당한 용기와 포장을 하면 특산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분석은 실증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수가 적었고, 질문 항목도 제한되어 있어서 자리젓 製品의 개발과 상품화 계획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 또한 特産物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써, 관광객들이 꿀을 많이 구입하므로, 濟州에서만 채취되는 유채꿀과 감귤꿀을 일반 잡꿀과 구별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特産物에 대한 生産 및 流通上의 問題點과 對策

問 題 點	行 · 財 政 支 援 方 案
○ 향토성이 있는 特産物 개발 미흡	○ 민속공예품의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특히, 副業團地 제품)
○ 觀光客들의 特産物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불만	○ 제주의 전통민예품 발굴 및 觀光商品化 개발 지원 ○ 자리젓 製品의 개발지원 (부업단지 지정 및 기술지원)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산물 개발 필요 ○ 特産物의 디자인, 포장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디자인포장센터 지도 횡수 확대, 디자인 지도 전문적 상설기구 설치)
○ 불량토산품 유통	○ 우수 토산품의 生産과 流通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산물 流通審議委員會 (관련행정기관, 민속공예조합, 소비자보호단체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우수 土産品에 대한 검사표 부착 및 이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
○ 특산물 유통마진의 과다에 따른 관광객의 판매가격에 대한 불만	○ 副業團地 製品 및 특산물 공관장 설치 (定期觀光 코스로 指定) ○ 價格表示制의 정착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관련업소의 담당자 교육강화 ○ 價格表示制 우수 토산품점에 대한 재정상의 혜택 강화

問 題 點	行 · 財 政 支 援 方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濟州 特産物에 대한 홍보 미흡</li> <li>○ 우수 民俗工藝品 제조업체 재정 지원</li> </ul>	<p>( 예, 가격표시제 우수 토산품점 지원자금 대출 확대 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주요 特産物의 정찰제 도입 검토</li> <li>○ 濟州 特産物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의 검토( 예, 민예품 경진대회 개최장소 및 시기를 관광 성수기에 주요 관광지에서 실시함 ).</li> <li>○ 우수 民俗工藝品 제조업체에 융자금 지원시 담보물 감정가격 전액 융자방안 검토</li> </ul>

### 6. 濟州道 加工工場의 現況과 擴充 可能性 摸索

#### (1) 調查의 概要

道內 加工工場 現況 분석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農産物을 가공처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가 되며, 農家에 농외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農業所得과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하고 있는 감귤 가공공장, 전분공장, 야채가공공장 및 원료를 주로 바다에서 채취하여 가공하고 있는 해초 가공공장 등을 중심으로 7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加工工場의 現況

○ 제주도내 소재 3개 감귤 가공공장의 연간 처리능력은 총 44,500t ( 265t /일 ) 이고, 주요 가동시기는 감귤 수확기인 11월초에서 3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의 임시종업원 고용수는 총 596명 - 857명 정도로 농가의 농외취업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구 분		해 태 음 료	못 데	대 한 종합식품
주요 가동시기 임시 종업원수	남	70 - 80 명	120 명	6 - 7 명
	여	200 - 250 명	300 명	100 명
	계	270 - 330 명	220 - 420 명	106 - 107 명
임시 종업원의 거주지		서귀포-대정	남원-성산	제 주 시
연 간 처 리 능 력		20,000t(160t/일)	20,000t(170t/일)	4,500t ( 35t/일)
작업시 종업원의 유동인원		100 명	100 명	50 명
생 산 제 품 형 태		반제품 ( 농축액 )	반제품 ( 농축액 )	최종소비제(알알이)

○ 감귤 가공공장의 가동에 있어 원료수매의 계절적 요인으로 가동율이 매우 저조하며, 감귤의 해결이 현상에 의해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공용 출하가 많아지고, 감귤 출하량이 적어 생과 가격

이 좋은 시기엔 農家の 加工用 출하 기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외 취업기회의 확대와 안정된 감귤 수요 기반확충 및 감귤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의 농가환원으로 제주도 農家の 所得增大를 위해 감귤 가공공장의 도내 확충은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 야채 가공공장은 주로 마늘, 양파, 당근 등을 가공 처리하고 있으나 육지부의 작황에 판매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된 판로 확보가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다.

○ 해초 가공공장중 감태와 켄톡을 가공 처리하는 공장들은 거의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원료를 자연에서 채취해야 하므로 원료 확보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82년 이후 전국적으로 계속 공장수가 감소해가고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은 '85년말 현재 전국 53개 공장(총 생산량 18,500t) 중 제주도내에 '85년 가동공장이 총 45개로 총 생산량이 16,033t(전국의 86.7%)이었으며, 그 중 44개 공장이 재래식 생산방식에 의존하고 1개 공장만이 현대식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 '86년 가동공장은 폐수처리시설 기준 강화로 '85년 기준 20.0%에 달하는 9개 전분공장이 문을 닫고 36개소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중 7개소는 폐수처리 기준 미달 공장으로서 지적되어 실제 가동공장은 29개소에 불과하다.

○ 그러나, 고구마 전분공장이 제주도내 전역에 골고루 입지하고 있고, 주요 가동시기인 10월 - 3월말까지 20 - 50명의 임시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구마 전분공장의 휴·폐업으로 農家の 농외 취업기회 상실과 영세소농이 대부분을 이루는 고구마 생산 농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道內 고구마 전분공장 폐수처리 기준의 단계적 적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고구마 전분생산의 계절성으로 원료구입 및 제품판매 자금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고구마 전분생산이 2 - 3개월에 집중되는 관계로 생산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 현상의 경우도 조사되었다.

### (3) 加工工場의 擴充 可能性

○ 해초 가공공장은 原料의 대량양식이 곤란하고, 原料調達이 자연환경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확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야채 가공공장도 가공처리 작물의 육지부 작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 및 판매상에 제약이 있다.

○ 감귤 가공공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귤 가공품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市場需要가 충분해야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시장개방으로, 양질이며 저가의 감귤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消費地와 가까운 지역에 감귤 가공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육지부에 위치한 기존 가공공장들의 시설 확충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 감귤 가공공장의 확충 가능성도 가공용 감귤 수매량 전량을 濟州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감협,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시설 규모 소요자금 및 손익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자금조달 능력, 企業性을 띤 가공업체들과 경쟁할 능력, 가동일수가 약 120일 정도인데 막대한 시설을 어떻게 연중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고구마 전분공장의 확충 가능성 모색은 고구마 가공공장의 연중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구마 가공공장이 재래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감자 및 옥수수 전분 가공을 함께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한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다.

○ 고구마 澱粉工場 擴充을 위한 課題와 解決方案

課 題	解 決 方 案
○ 고구마 전분공장 가동율 제고	○ 고구마 전분공장에 옥수수·감자 전분 가공시설 추가(가동율 제고의 경제성과 원료 수송비의 비경제성 고려, 전분수요 증가에 따른 과잉시설 초래않는 범위 고려)
○ 고구마 전분의 원료비 절감(고구마의 수율저조)	○ 고구마 수율향상을 위한 고구마 신품종 개발(출하시기 연장)
○ 고구마 전분의 수요 증대	○ 상품 제조면에서 옥수수 전분과 경쟁 우위에 있는 당면 제조용 전분은 최소한 고구마 전분의 함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 3. 農工地區의 開發 可能性

지역간 균형발전, 도·농간의 불균형 축소, 농촌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농외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農工地區에 대한 제주도에서의 개발 가능성 진단은 農工地區 開發의 基本方向, 農民들의 工場 就業可能性, 農工地區造成時 立地妥當性 檢討基準, 農工地區 入住希望業體, 農工地區造成을 위한 提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음.

#### (1) 濟州道 農工地區 開發의 基本方向

- 農外所得 增大 시책의 목표는 農家 계층간 所得 격차 완화, 지역간 所得 격차 완화, 도·농간의 소득격차 완화, 農家所得의 불안정성 해소에 두어야 함.
- 지대별 農外所得 구조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대로 지대간의 農家所得의 형평화를 위해 해안지대 영세소농의 所得源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임.
- 지역별로 農家の 農家所得이나 農外所得 수준이 전체 농가 평균에 비해 한림지역 농가가

(66.8%) 가장 낮았으며 제주시(68.4%) 순이었는데, 지역간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제주도의 農外所得源 開發로서 農工地區 造成은 제주시와 한림 지역의 해안지대 영세소농들이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 전망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볼 때 한림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農外所得源으로서의 農工地區造成

○ 農外취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직업은 제조업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이 23.0%, 관광 서비스업 18.0%, 건설업이 13.1%, 기타 11.5%로 나타남.

○ 인근 지역에 입지되기를 원하는 제조업은 農産物 加工工場이 79.1%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농기계 수리 및 기계공업 6.1%, 농업생산 자재공장 4.7%, 공예품공장 4.7%, 기타 5.4%로 나타남. 특히, 農産物 加工工場을 원하는 농가의 70%는 감귤, 12.8%는 고구마 가공공장 마늘의 가공공장의 순으로 입지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農外所得源의 개발은 농민의 통근권에 農産物 加工工場을 우선적으로 유치함이 바람직함(농외소득 기회 제공 및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기반 제공).

### (3) 農民들의 工場就業 可能性

○ 農外 취업을 원하는 농가는 전체조사 농가의 36.7%인 65호로 그 중 재촌탈농 및 재촌겸업을 원하는 농가가 80%인 52호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農外취업을 원하는 農家 65호중 약 64.6%인 42호가 영세소농이었으며, 그중 약 81.0%가 통근 취업을 바라고 있음.

○ 영세소농들이 工場취업을 農外所得 增大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점은 農村開發(農工團地 造成)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나,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공장취업 가능성은 취업 의사만이 아니라 취업능력을 동시에 가질 때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 그런데, 분석 결과 조사농가중 3.4%만이 적극적 의미의 공장취업 가능 농가였고, 소극적 의미의 공장취업 가능 농가는 32.8% 그리고 공장취업 불가능 63.8%로 압도적이었다.

○ 영세소농층에서는 5.1%만이 적극적 의미의 공장취업 가능 農家였고, 소극적 의미의 공장취업 가능 농가는 25.5%, 그리고 공장취업 불가능 農家는 69.4%로 지배적이었다.

○ 따라서 영세소농을 포함한 農家の 農外所得 增大를 위한 農村工業開發(農工團地 造成) 정책은 농민들이 상시 종업원으로서의 공장취업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 (4) 農工地區 造成時의 立地 妥當性 檢討 基準

○ 農村地域 工業立地時 문제되는 입지 인자는 공업인력 확보 문제와 제품판매문제 제품 및 자재 수송문제 도로 및 통신시설 미비, 공장부지 확보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 農工地區 造成 후보지 선정은 입주 희망업체가 많은 지역과 용지 확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도로, 통신, 공업용수,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인근에 工業團地가 없는 지역, 農漁家 所得增大 效果와 農漁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農工地區造成을 위한 提言

○ 도내 가공공장들 중 農工地區造成時 入住를 희망하는 곳은 해초 가공공장인 태림상사와 농산물 가공공장인 대한종합식품, 전분공장인 대영산업사가 農工地區造成 후보지로 조사되었다.

○ 農外所得 구조실태로 보아 한림지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土地妥當性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함.

○ 農工地區造成時 入住한 工場 從業員들의 일정 비율을 그 地域이나 인근 부락의 農家構成 員中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 第1章 農外所得의 概念

### 第1節 農家經濟活動의 區分과 農外活動

農外所得은 農家所得의 한 構成要素이며 農家の 農外活動의 정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指標이다. 따라서 農外所得의 概念을 定立하는 데는 農家の 經濟活動 가운데 어디까지가 農外活動인가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農家の 經濟活動은 產業的 性格에 따라 農業活動 (agricultural activity) 과 非農業活動 (non-agricultural activity) 으로 區分되고, 農家資源의 雇傭處에 따라 農家內 活動 (on-farm activity) 과 農家外 活動 (off-farm activity) 으로 區分된다. 이러한 區分에 따라 農家の 經濟活動을 概念的으로 具體化하면 <表1>과 같이 된다.

<表1> 農家經濟活動의 概念的 區分

經濟活動의 產業的 性格	經濟活動의 場所의 性格		
	農家內 活動	農家外 活動	
		勞 動 力	實物 및 貨幣資產
農 業 活 動	○ 自營農業 (耕種, 果樹, 원예, 畜產, 양잠, 양봉 등)	○ 被傭農業勞動 및 農業서비스	○ 農地質貸 ○ 農舍質貸 ○ 農機械質貸
非 農 業 活 動	○ 自營農外 事業 - 林業 및 水産業 - 家內工業 및 副業 - 農產加工 - 商業 및 서비스業	○ 農外就業 (一時的·季節的·定期的인 工場, 會社, 公共機關  등의 취업)	○ 豫 金 ○ 貸與金 ○ 出資金

〈表1〉과 같이 農家經濟活動을 具體的으로 分類할 때 農外活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問題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일된 基準은 定立되지 않고 있다. 統計分類方式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3年 以後부터 自營農業活動을 除外한 모든 活動을 農外活動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台灣의 경우는 自營農業活動만이 아니라 自營林業 및 水產業까지를 제외한 農家活動을 農外活動으로 區分하고 있다. 또한 農業經濟學者들도 自營農業活動을 제외한 農家の 모든 活動을 農外活動으로 보기도 하고,<sup>1)</sup> 被傭農業勞動과 農外就業만을 農外活動으로 보는<sup>2)</sup> 研究目的에 따라 農外活動의 概念을 달리하고 있다.

本 研究는 濟州道 農家の 農外所得增大라는 政策的 關心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研究目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① 農外活動은 農家の 農外所得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야 하며, ② 農家所得에서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은 間接적으로 農家の 農外活動을 가능하는 指標가 되어야 함을 要求한다. 따라서 農外活動에 被傭農業勞動과 農家の 財產所得의 源泉인 實物 및 貨幣資產의 他人 貸與活動을 包含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研究目的에 부합하는 農外活動은 農外事業活動과 農外就業活動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第2節 農外活動의 必要와 重要性

農家の 農外活動을 農外事業活動과 農外就業活動으로 限定할 때, 農家經濟가 왜 農外活動을 필요로 하며 그 重要性는 어떠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質問에 대한 傳統的인 假說的 說明은 다음의 4가지로 要約되고 있다.

① 農家經濟의 資本主義的 市場經濟化에 따라 農家の 現金需要는 계속 增大하고, 이러한 現金需要充足을 위한 現金所得增大努力의 일환으로 農家經濟의 農外活動이 일어난다.

② 農業生産의 季節性에 따른 農閑期 遊休農家資源의 活用, 農業生産의 資本化와 機械化에 따른 剩餘勞動力的 活用 등 農家の 資源配分最適化努力의 일환으로 農外活動이 일어난다.

③ 農家經濟가 保有하는 資源가운데 勞動/土地比 (labour/land ratio)의 增大가 過剩農業就業을 일으키고 그 解消方案의 일환으로 農外活動이 發生한다.

④ 農家家口員의 教育水準, 年齡, 職業에 대한 選好 등의 個人的 動機에서 農外活動이 일어난다. 특히 農業經營規模가 크고 所得水準이 높은 農家に 있어서 農外活動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理由로 說明된다.

이상의 傳統的인 說明은 農家經濟의 農外活動을 農業活動의 副次的 性格으로 보고 意思決定을 행하는 農業指向的 兼業農家에서 農外活動이 일어나는 理由를 잘 表現해 준다. 그러나 農外活動

1) Rohe: Kada, 「Part-time Family Farming」, Tokyo, Japan, Center for Academic Publications, 1980, p.16.

2) C. E. Bishop, "Part-time Farming and the Low-Income Farm Problem",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37, 1965, p.1429.

에 중점을 두고 保有資源의 配分에 관한 意思決定을 행하는 非農業指向의 兼業農家の 農外活動에 관한 설명으로서는 未洽하다. 따라서 非農業指向의 兼業農家の 農外活動이 왜 일어나는가를 檢討함으로써 農外所得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生産物의 生産에 投入되는 勞動力에 대하여 지불되는 賃金의 上昇率을  $\dot{W}$ , 生産物의 價格上昇率을  $\dot{P}$ , 그리고 勞動生産性의 增加率을  $\dot{y}$ 라 하면,

$$\dot{w} = \dot{p} + \dot{y} \dots \dots \dots (1)$$

이라는 關係가 존재한다.<sup>3)</sup> 따라서 個別農家가 保有勞動力의 部門別 配分에 관한 意思決定을 행함에 있어서 1單位 勞動力을 農業部門에 投入할 때 얻어지는 所得의 增加率이 그것을 非農業部門에 投入할 때 얻어지는 所得의 增加率보다 낮게 될 것이라 期待되면 이 農家は 非農業活動 즉, 農外活動을 積極化할 것이다. 이를 式 (1)에 의해 설명하면 어떤 個別農家가 만약 時間의 經過에 따라 農産物價格上昇率이 相對的으로 低下하고 農業生産性의 增加率도 相對的으로 低下할 것이라 期待되면 이 農家は 保有勞動力을 加급적 農外活動에 配分하여 農家所得의 增大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非農業指向의 兼業農家の 農外活動은 바로 이러한 期待下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農家經濟의 農外活動이 일어나는 根本原因은 農産物價格上昇率의 相對的 低下現象과 農業生産性增加率의 相對的 低下現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農産物價格上昇率의 相對的 低下現象은 農産物交易條件의 장기적인 不利現象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기인한다.<sup>5)</sup>

첫째, 農産物은 完全競爭에 가까운 市場에서 그 價格이 형성되는데 반하여 非農業部門에서는 獨寡的 構造로 말미암아 生産者가 生産物價格을 좌우할 수 있는 立場이므로 生産性 增大에 의한 單位生産費의 저하가 生産物價格에 반영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높은 水準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農産物價格의 相對的 低位의 한 原因이다.

둘째, 需要側 要因을 보면 經濟成長과 더불어 所得水準이 높아지며, 所得增加는 一般的으로 모든 財貨와 用役의 需要增大를 유발한다. 一般的으로 農産物需要의 所得彈力性은 非農産物의 그

3) 어떤 生産物의 生産에 투입되는 直接·間接 勞動을 포함하여 總勞動量을 L, 生産량을 Q, 가격을 P, 임금을 W, 임금액(WL)의 生産액(PQ)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임금분배율을 r이라고 하면,

$$rPQ = WL, \text{ 즉 } W = rP(Q/L) \dots \dots \dots (1)$$

$$\ln W = \ln r + \ln P + \ln(Q/L) \text{ 즉 } \ln W = \ln r + \ln P + \ln(y), [y = Q/L] \dots \dots \dots (2)$$

(2)식의 양변을 時間에 관하여 미분하면

$$\frac{1}{W} \frac{dW}{dt} = \frac{1}{r} \frac{dr}{dt} + \frac{1}{P} \frac{dP}{dt} + \frac{1}{y} \frac{dy}{dt}, \text{ 즉 } \dot{W} = \dot{r} + \dot{P} + \dot{y} \dots \dots \dots (3)$$

그런데 임금분배율인 r은 대체로 一定하므로  $\dot{r} = 0$

따라서  $\dot{W} = \dot{P} + \dot{y} \dots \dots \dots (4)$

4) 이는 個別農家の 生産活動 目的이 現金所得 極大化에 있다는 假說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生産활동의 目的이 만족극大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個別農家가 자신이 보스(boss)가 되려는 욕망, 특정지역에 살고 싶은 욕망, 가까운 친척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 등으로 非農業指向 慾求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자원 이용에 있어서 이러한 非貨幣的 고려사항 등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一般化하기 어렵다. (Bishop,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conomic Analysis, 1968, p.248).

5) 文八龍, 現代農業經濟學, 1982, p.114.



것보다 작으므로 農産物의 需要는 자연히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며, 이 결과 價格上昇壓迫은 農産物이 非農産物보다 더욱 적게 된다고 볼 수 있다.

農業生産性 增加率의 相對的 低下現象은 基本的 生産手段인 土地의 質的·量的 制限과 이로 인한 農業의 수확체감 현상, 有機的 生産에 기인한 機械化의 곤란과 技術進步의 상대적 정체, 自然氣候的 條件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으로 인한 計劃生産의 困難, 生産의 季節性에 기인한 農家資源의 不完全就業 등 農業生産의 一般의 特性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地域의 경우에는 특히 過剩人口下의 小農의 生産樣式이 가지는 內的·外的 要因에 기인한 側面이 더욱 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農家經濟의 農外活動이 일어나는 要因은 앞에서 살펴본 傳統的인 4가지 假說 以外에,

- 거의 完全競爭에 가까운 農産物의 市場構造
- 相對的으로 非彈力的인 農産物需要의 所得彈性
- 農業生産의 一般의 特殊性
- 過剩人口下의 小農의 農業生産樣式

등을 추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農家經濟를 둘러싼 內的·外的 要因들은 構造的이며 持續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農家經濟에 있어서 農外活動은 그 重要性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第 3 節 農外所得 概念의 再定立

農家에 대한 傳統的이고 慣行的인 認識은 농업을 주요 사업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經濟主體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면 農家에 있어서 農業活動으로부터 얻어지는 農業所得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副次的인 것이 된다. 따라서 慣行的인 農外所得의 概念이 農家所得에서 農業所得을 뺀 나머지로 評價된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農外所得의 認識은 農家家口員의 農外活動의 結果라고 볼 수 없는 財産的 收入이나 피증, 송금보조와 같은 移轉所得을 포함하는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認識은 農家經濟에 대한 政策的 關心을 지나치게 作目中心의 農業政策 (commodity-oriented agricultural policy)에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經濟的 與件이 각각 다른 農家經濟에 대하여 差別的 效果를 가져오고 結果的으로 農家間 所得隔差를 유발시켰다.<sup>6)</sup>

都市化·工業化로 표현되는 그동안의 우리社會의 産業化 過程은 農家經濟를 둘러싼 內的·外的 與件을 크게 변모시켰고, 이러한 與件의 變化에 대응하여 專業的 農家, 農業指向的 兼業農家 및

6) 金東熙外, 轉換期의 韓國農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pp.306~310.

非農業指向의 兼業農家 등 經濟的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農家類型이 뚜렷이 부각되어 왔다. 이는 農家들을 同質的 集團이 아닌 異質的 集團으로 認識하고 각각의 集團類型에 맞는 새로운 政策形成을 要求한다. 그러한 政策은 作目中心의 農業政策이 아닌 農家中心의 農業政策 (farmhousehold-oriented agricultural policy) 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政策은 農家の 農業活動과 農外活動을 다 같이 重視하는 方向에서 形成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農外所得의 概念도 “순수한 意味의 農外活動 즉, 농가 家口員의 農外事業活動과 農外就業活動으로부터 얻어지는 所得”으로 再定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本 研究은 제주도 농가의 農外所得 增大라는 政策的 關心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農外所得 概念을 使用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農家所得統計에서 關行적 農外所得 概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를 併用코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가지 農外所得 概念間의 關係를 明示할 필요가 있다. 그 關係는 다음과 같다.

- 關行적 농외소득 = 새로운 농외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이전소득
- 새로운 農외소득 = 農외事業소득 + 農외취업소득
- 재산소득 = 農지임대료 + 기타임대료 + 배당이자
- 이전소득 = 贈金보조 + 피증 + 사례금
- 기타소득 = 農업노임 + 가사수입 + 기타 잡수입
- 農家所得 = 農업소득 + 關行적 農외소득

## 第Ⅱ章 濟州道 農家の 農外所得 實態

### 第1節 調查標本과 研究資料의 性格

公式의으로는 아직까지 濟州道 農家の 農外所得에 關한 情報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에 關한 情報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農家標本調查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調查標本이 全體 母集團인 濟州道 農家를 代表할 수 있을 때, 標本資料의 分析結果를 통하여 제주도 農가의 農外所得의 實態와 그 增大方案을 보다 精確히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農家全體를 대상으로 다수의 標本을 無作為로 抽出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時間과 努力의 制約으로 다만 地域別·地帶別로 農家與件이 相違함을 고려하여 9개 里洞을 選定하고 각 里洞에서 30戶의 標本農家를 層化抽出하였다.

現地調查는 調查農家들이 1986年의 所得을 비교적 源泉別로 精確하게 기억하고 豫상할 수 있는 時期인 8月初에 進行되었다. 그러나 標本農家와의 面接의 困難, 被調查者의 不誠實한 情報提供 등

으로 調査過程에서 불가피하게 發生하는 誤謬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調査表의 內容을 檢査하고 調査者와의 調査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論議하여 集計分析에서는 상당수의 農家標本資料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당초의 調査標本數와 研究分析 對象이 된 調査標本은 <表 2>와 같이 相異하다.

<表 2> 調査標本과 分析對象標本

단위: 戶

구 분 지 역	당 초 표 본			집 계 분석 표 본		
	해 안	중 산 간	계	해 안	중 산 간	계
제 주 시 지 역	30	30	60	28	23	51
서 귀 포 시 지 역	30	30	60	26	20	46
한 립 지 역	60	30	90	28	15	43
성 산 포 지 역	30	30	60	19	18	37
계	150	120	270	101	76	177

分析對象이 된 標本農家의 戶當平均 耕地規模는 3,270.8坪으로 '85年 濟州道 農家平均인 3,620.9坪보다 10.8% 적었다. 또한 規模別 標本農家의 分布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年 濟州道 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에 비하여 中農層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많았다.

<表 3> 標本農家의 耕地規模別 分布

단위: 戶

구 분	규모 별 0.5 ha 미 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 상	계
標 本 農 家	47 (26.6)	51 (28.8)	40 (22.6)	27 (15.2)	12 (6.8)	177 (100.0)
'85 濟州道 全體	12,645 (29.9)	14,641 (34.6)	8,050 (19.1)	4,101 (9.7)	2,841 (6.7)	42,278 (100.0)

調査標本이 有意選定되고 조사후 상당수의 標本이 集計過程에서 기각되었으며 標本分布가 母集團인 濟州道 農家分布와 약간 歪曲되었다는 점에서 資料分析의 結果는 代表性을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研究結果는 集計에 포함된 農家들에 대한 일종의 事例分析和 같은 性格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보다 정확하다.

따라서 本 研究의 結果值에 대한 해석은 어떤 絕對額의 정확성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대체적인 水準이나 傾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地域別·地帶別·階層別로 比較分析한 結果 등에 대해서는 絶對的 숫자 보다는 相對的 水準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第2節 農外所得의 構造

### 1. 規模別 農外所得 構造

標本農家 177戶의 戶當平均 農外所得은 農家所得의 23.9%에 해당하는 1,814.1千원으로 나타났다. 規模別로는 0.5 ha 미만의 零細農의 경우에만 農外所得率이 59.4%로 비교적 높은 편일 뿐 中小農이나 大農의 경우는 20% 内外에 불과하였다.

〈表4〉 제주도 農家の 經營耕地 規模別 農外所得 依存度  
- 177戶 標本農家 調査結果(1986) -

단위 : 천원

구 분 \ 規 模 別	0.5 ha 미 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ha 이 상
농 가 소 득	4,401.1	6,481.2	8,723.4	9,337.8	9,862.8
농 외 소 득	2,614.9	1,490.1	1,693.7	1,910.0	1,872.9
농 외 소득율(%)	59.4	23.0	19.4	20.5	19.0

零細農層의 農外所得 依存도가 높은 것은 耕地의 不足에 의한 農業所得增大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農外活動을 주로 農外就業面에서 전개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零細農 全體의 42.3%의 農家가 常傭職으로 農外就業活動을 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小農 이상의 農家階層의 農外所得 依存도에 있어서 有意的인 差異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表5〉의 農外所得構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農外就業活動은 小農이 상대적으로 活潑하나 中農의 경우는 農外事業活動 즉 兼業活動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전체적으로 農外所得率의 隔差를 相殺시키고 있다.

둘째, 小農의 兼業活動은 水産業이나 農産加工 등 傳統的 部門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中·大農의 兼業活動은 商工業 등 근대적 部門에 집중되어 農外事業所得의 隔差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大農의 경우 상대적으로 高等教育을 받은 家口員이 2次 所得者로서 農外就業를 함으로써 中·小農보다 農外就業所得을 더 많이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標本農家の 農外活動은 現在로서는 農家階層間의 所得不均衡을 完 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農外活動이 가장 왕성한 零細農의 경우 아직도 農業活動에 過剩就業되

〈表 5〉 經營耕地 規模別 農家平均 農外所得 構造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1986) -

단위 : 천원

원천 규모	농외 사업소득(겸업소득)					농외 취업소득			농외소득 합 계
	수산업	농산가공	상공업	기 타	소 계	노 임	급 료	소 계	
0.5 ha 미 만	207.7 ( 7.9)	-	323.1 (12.4)	47.8 (1.8)	578.6 (22.1)	241.2 (9.2)	1,795.2 (68.7)	2,036.4 (77.9)	2,614.9 (100.0)
0.5~1.0 ha	69.1 ( 4.6)	-	111.1 ( 7.5)	17.8 (1.2)	198.0 (13.3)	53.6 (3.6)	1,238.5 (83.1)	1,292.1 (86.7)	1,490.1 (100.0)
1.0~1.5 ha	405.2 (23.9)	140.4 (8.3)	53.6 ( 3.2)	7.2 (0.4)	606.4 (35.8)	45.4 (2.7)	1,041.9 (61.5)	1,087.3 (64.2)	1,693.7 (100.0)
1.5~2.0 ha	98.2 ( 5.1)	-	1,111.1 (58.2)	45.2 (2.4)	1,254.5 (65.7)	54.8 (2.9)	600.7 (31.4)	655.5 (34.3)	1,910.0 (100.0)
2.0 ha 이 상	30.9 ( 1.7)	-	445.7 (23.8)	24.6 (1.3)	501.1 (26.8)	33.2 (1.8)	1,338.6 (71.4)	1,371.8 (73.2)	1,872.9 (100.0)
평 균	197.2 (10.9)	44.4 (2.4)	303.1 (16.7)	23.6 (1.3)	568.3 (31.3)	77.1 (4.3)	1,168.7 (64.4)	1,245.8 (68.7)	1,814.1 (100.0)

주: ( ) 내는 농외소득 합계에 대한 比率(%)임.

어 農業勞動生産性이 다른 階層의 50% 水準에도 이르지 못함으로써 1.0~1.5 ha 農家層의 所得水準에 비하여 약 49%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小農 以上の 階層에서도 農外活動의 制限으로 農業部門에 勞動力을 상대적으로 많이 配分함으로써 土地生産性은 下位階層일수록 높으나 農業勞動生産性은 上位階層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 下位階層일수록 상대적으로 農業部門에의 過剩就業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小農 以上の 階層에서 農外所得率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점과 더불어 階層間의 所得不均衡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農家階層의 農業部門 過剩就業現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代案으로서 農外所得源의 開發 특히 農外就業機會의 擴大는 農家階層間의 所得不均衡의 완화와 農家所得의 지속적인 成長을 위해 절실한 課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6〉 農家階層別 土地生産성과 農業勞動生産性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1986) -

단위 : 천원

구 분	0.5 ha 미 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 상	평 균
土地生産性(10a당)	481.1	710.9	556.9	421.4	292.5	551.2
농업노동생산성(1인당)	1,317.3	2,465.4	3,174.3	3,689.9	5,181.8	2,922.7

2. 地帶別 農外所得 構造

옛부터 제주도의 經濟地帶는 海岸과 中山間으로 區分되어 왔다. 海岸地帶는 土地가 비옥하고 평탄하며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用水도 풍부하여 일찍부터 墾墾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濟州 經濟의 發展과 함께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이 海岸地帶를 중심으로 擴充되었고, 이는 근대적 部門인 商業, 서비스業 및 工業을 海岸地帶에 集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海岸地帶를 中心으로 한 近代의 部門의 擴充은 이 地帶의 傳統의 部門인 水產業과 함께 農家의 農外活動을 다른 地帶보다 더 活潑하게 하였다. 더우기 中山間에 비하여 戶當 耕地規模가 적고 柑橘栽培條件도 상대적으로 不利하였기 때문에 海岸地帶 農家의 農外活動에 대한 관심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事實은 標本農家의 分析結果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岸地帶農家의 農外所得率은 中山間에 비하여 12.2% 「포인트」 높고 農外所得水準도 58.5% 더 높다는 점, 그리고 <表 8>에서 海岸地帶 農家의 農外所得에서 차지하는 農外事業所得의 比重이 41.7%로서 中山間的 9.4%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表 7> 地帶別로 본 規模別 農家平均 農外所得 依存度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 (1986) -

단위 : 천원

규모별 地帶別		0.5 ha	0.5~1.0	1.0~1.5	1.5~2.0	2.0 ha	평균
		미만	ha	ha	ha	이상	
海岸	농가소득	3,684.5	5,779.2	8,996.1	13,066.9	9,758.5	7,342.1
	농외소득	2,404.3	1,182.8	2,270.9	4,152.0	2,676.2	2,156.9
	농외소득율(%)	65.3	20.5	25.2	31.8	27.4	29.4
中山間	농가소득	6,789.6	7,674.7	8,386.4	6,774.7	9,920.7	7,915.4
	농외소득	3,317.3	2,012.5	978.0	368.8	1,426.6	1,359.8
	농외소득율(%)	48.9	26.4	11.7	5.4	14.4	17.2

<表 8> 地帶別로 본 農家平均 農外所得 構造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 (1986) -

단위 : 천원

원천별 지대별	농외사업소득(겸업소득)					농외취업소득			농외소득 (合計)
	수산업	농산가공	상공업	기타	소계	농외노임	봉급	계	
해안	345.6 (16.0)	77.8 (3.6)	453.9 (21.1)	21.9 (1.0)	899.2 (41.7)	107.1 (5.0)	1,149.7 (53.3)	1,256.8 (58.3)	2,155.9 (100.0)
중산간	-	-	102.6 (7.5)	25.9 (1.9)	128.5 (9.4)	37.4 (2.8)	1,193.9 (87.8)	1,231.3 (90.6)	1,359.8 (100.0)

그러나 濟州道の 地帶別 戶當平均 農家所得의 格差는 무시할 정도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山間 地帶의 戶當平均 農家所得은 7,915.4千원으로 海岸地帶의 그것보다 약 7.8% 높은 水準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帶別로 본 農家階層間的 所得不均衡度에서는 뚜렷한 差異가 存在하고 있다. 즉, 農外事業活動의 機會가 적고, 상대적으로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階層일수록 農外就業活動을 活潑히 하며, 經營耕地中 과수원의 비율도 높은 中山間 地帶의 所得不均衡度는 매우 낮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階層일수록 經營耕地中 과수원 面積의 比率이 적고, 中大農層이 近代의 部門에서 農外事業活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海岸地帶의 農家階層間에 있어서 所得不均衡度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9> 地帶別로 본 規模別 과수원 面積의 戶當平均 比率  
- 제주도 177戶 農家調查 結果(1986) -

단위 : 坪

지대별 \ 규모별		0.5 ha	0.5~1.0	1.0~1.5	1.5~2.0	2.0 ha	평균
		미만	ha	ha	ha	이상	
해안	경영경지계(A)	900.1	2,136.7	3,451.4	4,986.5	7,077.0	2,850.3
	과수원(B)	175.0	785.9	1,074.0	1,945.5	3,400.0	1,009.1
	B/A (%)	(19.4)	(36.8)	(31.1)	(39.0)	(48.0)	(35.4)
중산간	경영경지계(A)	1,036.7	2,124.1	3,543.5	4,911.1	8,353.3	3,829.6
	과수원(B)	891.7	842.5	2,120.0	2,315.6	3,444.4	1,884.9
	B/A (%)	(86.0)	(39.7)	(59.8)	(47.2)	(41.2)	(41.2)

뿐만 아니라 地帶別로 본 農業勞動生産性은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海岸地帶 農家は 中山間 地帶 農家の 약 70.2% 水準이며, 특히 0.5ha 미만의 零細農層의 경우는 海

<表 10> 地帶別로 본 규모별 농업노동생산성  
- 제주도 177호 조사결과(1986) -

단위 : 천원

지역별 \ 규모별		0.5 ha	0.5~1.0	1.0~1.5	1.5~2.0	2.0 ha	평균
		미만	ha	ha	ha	이상	
해안지대		1,075.3 (43.5)	2,110.9 (85.4)	2,662.6 (107.7)	4,981.5 (201.5)	3,810.0 (154.1)	2,471.9 (100.0)
중산간지대		2,124.2 (60.3)	3,068.2 (87.1)	3,808.7 (108.1)	2,801.9 (79.6)	5,943.9 (168.8)	3,521.7 (100.0)

주: ( ) 内는 戶當平均에 대한 백분비임.

岸地帶가 中山間 地帶의 약 50.6%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海岸地帶의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階層의 農家에 있어서 農業部門 過剩就業現象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家間 所得不均衡의 완화와 農業部門 過剩就業의 解消를 위한 農外所得增大施策은 먼저 海岸地帶의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階層이 參與할 수 있도록 農外就業活動의 機會를 提供하는 方向에서 推進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3. 地域別 農外所得의 構造

제주도의 地域區分은 흔히 濟州市 中心의 北濟州 地域과 서귀포시 中心의 南濟州 地域으로 大別되어 왔으나 濟州市와 서귀포를 잇는 횡단도로의 건설,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都市化의 進전으로 經濟圈域은 제주시 中心의 北部地域, 서귀포시 중심의 南部地域, 성산포 중심의 東部地域 및 한림 중심의 西部地域으로 細分되고 있다.

各 地域은 自然·氣候의 條件과 함께 人文·社會的 與件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與件의 차이는 주민생활 뿐만 아니라 地域農家の 經濟活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農家の 經濟活動이 지역간에 差異가 나타나는 점은 農業經營活動에서 볼 수 있다.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 지역의 농가는 經營耕地의 약 98.1%를 果樹園으로 이용하여 果樹 위주의 專業化가 이루어진 반면에 다른 地域은 耕種·果樹·畜産의 多角營農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多角營農을 행하는 3 地域間에도 耕種部門의 경우 濟州市 地域과 한림 지역은 麥類, 豆類, 채소류가 支配的인데 비하여 성산포 지역은 特用 작물, 두류, 서류가 支配的으로 耕種農業方式에서 差異가 있음을 <表 12>에서 알 수 있다. 특히 濟州市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서류의 식부면적이 현저히 적은 반면에 都市近郊農業이라 할 수 있는 施設園芸가 부각되고 있다.

<表 11> 地域間 戶當平均 經營耕地의 構成比較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1986) -

단위 : 평

구분 지역	논	밭	과수원	기 타	경영경지 계	임 차지	임야및초지
제주시 지역	72.5 (2.4)	1,809.4 (61.1)	1,002.3 (33.8)	79.7 (2.7)	2,963.9 (100.0)	600.0 (20.2)	687.8 (23.2)
서귀포시 지역	-	-	2,759.8 (98.1)	53.6 (1.9)	2,813.4 (100.0)	65.2 (2.3)	397.8 (14.1)
한림 지역	103.5 (3.1)	2,582.0 (76.8)	574.4 (17.1)	100.4 (3.0)	3,360.3 (100.0)	758.1 (22.6)	999.3 (29.7)
성산포 지역	16.2 (0.4)	2,799.8 (67.4)	1,145.9 (27.6)	190.9 (4.6)	4,152.8 (100.0)	645.9 (15.6)	1,156.3 (27.9)

주 : ( ) 내는 경영경지 합계에 대한 백분비임.



〈表 12〉 地域間 耕種作物의 植付面積 構成

단위 : 평

지역 \ 작물								합 계
	맥 류	두 류	서 류	기 타 식량작물	채 소 류	특 용 작 물	시 설 원 예	
제주시지역	1,184.9 (35.8)	928.0 (28.0)	2.0 (0.1)	94.1 (2.8)	706.4 (21.3)	366.3 (11.1)	30.4 (0.9)	3,312.1 (100.0)
한림지역	1,646.3 (37.9)	475.6 (10.9)	512.7 (11.8)	202.3 (4.7)	795.3 (18.3)	711.6 (16.4)	-	4,343.8 (100.0)
성산포지역	305.4 (5.7)	1,397.1 (26.1)	801.6 (15.0)	162.1 (3.0)	410.8 (7.7)	2,283.6 (42.6)	-	5,360.6 (100.0)

주 : ( ) 내는 합계에 대한 백분비임.

農家の 農外活動 역시 地域間 農業經營組織과 農外活動機會의 差異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農外活動의 機會가 많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조사 농가의 50% 이상이 農外活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바나나 등 果樹作 위주로 專業化가 이루어진 서귀포시 지역 농가의 농외활동은 취업상태가 안정적인 상용직의 농외취업활동과 근대적 부문인 商工業 분야의 농외사업활동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하여 多角營農을 행하고 있는 제주시 지역 농가의 농외활동은 취업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직의 농외취업활동과 전통적 부문인 水産業, 농업 서비스 등의 농외사업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다. 한편 多角營農을 행하고 있고 농외취업활동의 기회도 적은 한림 지역과 성산포 지역에서는 농외활동을 행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도 50% 미만일 뿐만 아니라 농외활동도 주로 전통적 부문인 수산업 활동과 상용직의 농외취업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表 13〉 지역별로 본 분야별 농외활동 농가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 (1986) -

단위 : 호

구 분 지 역	조 사 농가수	농외활동 농가수	농 외 사 업 활 동 농 가				농외취업활동농가	
			수 산업	농업서비스	농산가공	상공업	임시직	상용직
제주시지역	51	27 (100.0)	3 (11.1)	7 (25.9)	2 (7.4)	1 (3.7)	10 (37.0)	18 (66.7)
서귀포시지역	46	25 (100.0)	-	-	-	4 (16.0)	3 (12.0)	19 (76.0)
한림지역	43	16 (100.0)	4 (25.0)	2 (12.5)	-	1 (6.3)	6 (37.5)	10 (62.5)
성산포지역	37	17 (100.0)	6 (35.3)	-	-	3 (17.6)	2 (11.8)	9 (52.9)

주 : 1. ( ) 내는 농외활동 농가에 대한 백분비임.

2. 동일농가가 2개 이상의 농외활동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 내의 합은 100을 초과함.

지역별 농외사업활동 분야와 농외취업상태의 차이는 지역별 농외소득구조의 차이를 조성한다. 그러나 農外活動으로 얻어지는 농외소득은 個別農家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외활동을 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가 평균 농외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농가의 農外事業規模나 농외취업시의 임금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농외활동 분야별 농가분포와 農外所得構造는 현저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表 1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表 14>를 보면 상대적으로 농외활동을 행하는 농가의 비율이 적은 성산포 지역의 戶當平均 農外所得이 가장 높은 바, 이는 이 지역의 농외활동농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농외사업규모가 크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 지역의 경우 농외활동을 행하고 있는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농외활동을 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에 비하여 호당평균 농외소득이 약 63.2% 水準에 불과한 바, 이는 제주시 지역 농가의 겸업활동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농외취업이 상대적으로 不安定한 임시직이거나 저임금의 상용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表 14> 지역별 농외소득 구조 비교 (호당평균)  
- 제주시 177 호 농가조사 결과(1986) -

단위 : 천원

원천 지역	농 외 사 업 소 득					농 외 취 업 소 득			합 계
	수산업	농산가공	상공업	기 타	계	농외노임	급 료	계	
제주시 지역	136.1 (9.2)	154.1 (10.5)	35.3 (2.4)	49.9 (3.4)	375.4 (25.5)	137.0 (9.3)	961.2 (65.2)	1,098.1 (74.5)	1,473.5 (100.0)
서귀포시 지역	-	-	287.0 (14.2)	3.1 (0.1)	290.1 (14.3)	37.1 (1.8)	1,700.1 (83.9)	1,737.2 (85.7)	2,027.3 (100.0)
한림 지역	213.5 (15.7)	-	27.9 (2.0)	34.4 (2.5)	275.8 (20.2)	99.1 (7.3)	988.4 (72.5)	1,087.5 (79.8)	1,363.3 (100.0)
성산포 지역	507.8 (20.0)	-	1,011.9 (39.8)	-	1,519.7 (59.8)	18.7 (0.7)	1,003.8 (39.5)	1,022.5 (40.2)	2,542.2 (100.0)

주 : ( ) 내는 농외소득 합계에 대한 백분비임.

농가의 농외소득 의존도를 지역별로 보면 <表 15>와 같다. 즉, 농외소득이 가장 높았던 성산포 지역의 農外所得率이 약 45.1%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제주시 지역, 한림 지역 그리고 서귀포 지역의 順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산포 지역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타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4 지역 가운데 2위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귀포 지역 농가의 경우는

7) 상용직의 농외취업기회를 가진 농가의 평균 봉급소득은 제주시가 2,723천원, 서귀포시가 4,116천원, 한림이 4,250천원, 그리고 성산포가 4,126천원으로 제주시 지역이 가장 낮다.

〈表 15〉 제주도의 지역별 농외소득 의존도 (戶當平均)

- 제주도 177 호 조사결과 (1986) -

단위 : 천원

구분 \ 지역	제주시 지역 A	서귀포시 지역 B	한림 지역 C	성산포 지역 D	평균 E	A/E × 100	B/E × 100	C/E × 100	D/E × 100
농가소득	5,190.1	14,167.3	5,069.4	5,641.8	7,588.3	68.4	186.7	66.8	74.3
농외소득	1,473.5	2,027.3	1,363.3	2,542.2	1,814.1	81.2	111.8	75.2	140.1
농외소득율	28.4	14.3	26.9	45.1	23.9	-	-	-	-

농외소득이 4지역중 2位이나 농업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全體農家平均보다 약 86.7% 높은 제 1위의 농가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 지역과 한림 지역은 농외소득의 상대적 저위로 농가소득도 각각 全體農家平均의 68.4%, 66.8%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地域間 農家所得 및 農外所得의 格差를 고려해 볼 때 地域間 所得不均衡의 完화를 위한 農外所得源 開發施策은 西部地域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第Ⅲ章 韓國, 日本, 台灣 및 濟州道の 農外所得 比較

#### 第1節 農外所得 評價方法

國際적으로 國家間 農外所得을 비교할 때 그 構成項目과 計算方法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農外所得의 개념을 “農家 家口員이 農業 以外의 部門의 經濟活動을 통하여 얻어지는 所得”이라는 점에서 韓·日·台灣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農外所得과 관련된 用語나 計算方法 및 項目의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台灣의 경우에는 評價方法이 다른 2개 기관에서 農外所得統計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의도 요망된다.<sup>8)</sup>

農外所得은 兼業所得, 事業以外의 所得 및 移轉收入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나 이들 用語 및 構成項目에는 韓·日·台灣間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兼業所得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와 台灣이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日本은 이를 農外事業所得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兼業所得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台灣은 林業 및 水産業 所得을 排除하여 이를 農業所得의 구성항목으로

8) 台灣의 농외소득자료는 主計處의 「家庭收支調查報告」와 農林廳의 「農外記帳報告」가 있다. 主計處의 보고는 全國平均農家 2,674 戶를 標本農家로 선정 조사하여 國際間의 比較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農林廳의 보고는 耕地規模別 및 農業地域別로 전국 490 호의 標本農家를 선정 조사하여 자국내에서 規模別 및 地域別 資料로 이용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와 日本은 이러한 項目을 兼業所得의 구성항목으로 보고 있다. 事業以外的 所得이라는 용어와 그 구성항목은 韓·日間에는 차이가 없으나 台灣의 경우는 事業以外的 所得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勞賃 및 俸給과 財産所得으로 細分하여 사용하고 있다. 移轉收入의 구성항목에는 韓·日·台灣間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日本의 경우 農家所得 計算에는 이를 排除하고 農家總所得을 계산할 때만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日·台灣間의 農外所得 比較에 있어서는 그 用語와 構成項目 및 計算方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各國의 公式發表資料를 그대로 사용하여 비교할 수 없다. 이점을 감안하여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慣行的 農外所得의 概念과 農外所得 構成項目 및 計算方法에 의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日本과 台灣의 資料를 修正하여 분석키로 하였다.

### 第 2 節 農外所得의 構造

제주도의 農外所得은 標本調査 結果에 의하면 1986年 현재 農家所得의 32.1%인 2,432.9천 원이며, 農外所得 依存度는 84年 현재 全國 平均인 33.3%보다 약간 낮고, 日本의 84.2%와 台灣의 68.3%보다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農外所得의 構造面에서 보면 제주도는 全國平均에 비하여 兼業所得과 農外就業所得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移轉收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日本이나 台灣과 比較해 보면 제주도는 兼業所得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크고 農外就業所得의 比重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16〉 韓·日·台灣과 濟州道の 農外所得 比較(戶當平均)

항 목 지 역	단위	농업 소득	농 외 소 득					농가 소득	
			겸업 소득	사업이외의 소득			이 전 수입		계
				임금및 봉급	재 산 소득	소계			
제주도 (1986)	천원	5,155.4 (67.9)	568.3 (7.5)	1,278.4 (16.8)	113.9 (1.5)	1,392.3 (18.3)	472.3 (6.2)	2,432.9 (32.1)	7,588.3 (100.0)
한 국 (1984)	천원	3,699.3 (66.7)	192.2 (3.4)	714.2 (12.9)	48.2 (0.9)	762.4 (13.8)	895.2 (16.1)	1,849.8 (33.3)	5,549.1 (100.0)
일 본 (1984)	천 ¥	1,065.3 (15.8)	326.1 (4.8)	3,699.2 (54.8)	270.2 (4.0)	3,969.4 (58.8)	1,389.1 (20.6)	5,684.6 (84.2)	6,749.9 (100.0)
대 만 (1984)	MT \$	81,137 (31.7)	19,157 (7.5)	108,788 (42.4)	25,633 (10.0)	134,421 (52.4)	21,546 (8.4)	175,124 (68.3)	256,261 (100.0)

주 : ( )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百分比임.

제주도의 農外所得 構造가 이처럼 陸地部나 台灣·日本과 다른 점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로서

〈表 17〉 韓·日·台灣과 濟州道の 農外所得 構造

단위 : %

지역	농외소득원 겸업소득	사업이외의 소득			이전수입	계
		임금및봉급	재산소득	소 계		
제주도 (1986)	23.4	52.5	4.7	57.2	19.4	100.0
한국 (1984)	10.4	38.6	2.6	41.2	48.4	100.0
일본 (1984)	5.7	65.1	4.8	69.9	24.4	100.0
대만 (1984)	10.9	62.1	14.7	76.8	12.3	100.0

설명할 수 있다.

첫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붕이 길게 잘 발달한 반면에 海岸線이 바로 外洋에 접하여 漁港開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小型漁船에 의한 農家の 漁勞作業과 海女の 貝類 및 海조류 채취작업에 의한 兼業所得의 機會가 상대적으로 많다. 〈表 17〉에서 제주도의 農家 가운데 零細小農層의 水産部門 所得 比重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이를 확인해 준다.

둘째, 제주도의 農村은 우리나라와 日本의 農村에 비하여 大規模의 自然部落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部落內에 商工業이 立地할 수 있는 與件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農村에 비하여 감귤·겨울채소·바나나 등 高所得作物의 生産活動이 活發하여 農村 購買力이나 農業의 機械化·資本化 水準도 상대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 유채, 감귤, 해조류 등 加工原料農水産物의 생산도 활발하여 原料産地인 農村을 중심으로 農水産物 加工工場이 일찍부터 立地하여 왔다. 이러한 與件은 資本力이 있는 中大農層의 商工業 活動의 誘因이 되어 왔고 零細小農에게는 農外就業機會로 되어 왔다. 〈表 18〉에서 제주도 中大農層의 商工業部門 兼業活動과 零細小農의 農外就業活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셋째, 그동안 道路·用水·電力·電話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으로 제주도 全域이 1日 通勤圈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地域에 비하여 農業部門의 高所得機會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農家家口員들의 在村脫農 誘因은 離村脫農 誘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表 18〉에서 陸地の 農家に 비하여 제주도 農家の 農外就業所得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出他한 家口員의 送金, 선불 등이 포함되는 移轉收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도록 하였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다른 農村의 경우 아직도 大家族制度和 長子相續의 傳統이 支配的인데 비하여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核家族制度和 均分相續의 傳統이 持續되어 왔기 때문에 出他한 家口員에 의한 送金, 선불 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조사결과 86년 현재 제주도 農家平均 送金補助가 236.4천원으로 84年 全國農家平均인 248.1천원보다 적다는 사실이 이를 실증한다. 이러한

〈表 18〉 規模別 農外所得 構造 比較

단위 : %

지역	제주도 (1986)				한국 (1984)				일본 (1984)				
	0.5 ha 미만	0.5~1.0 ha	1.5~2.0 ha	2.0 ha 이상	0.5 ha 미만	0.5~1.0 ha	1.5~2.0 ha	2.0 ha 이상	0.5 ha 미만	0.5~1.0 ha	1.5~2.0 ha	2.0 ha 이상	
농외 소득원	임업·임산물	7.3	3.2	3.9	1.2	3.6	2.3	2.3	3.5	0.2	0.7	1.4	2.2
	업·공업	11.4	5.2	44.6	17.4	5.0	3.0	4.5	4.3	4.1	4.1	2.8	4.5
	광업·기타	1.7	0.8	1.8	0.9	3.6	3.5	6.0	9.2	0.3	0.5	0.7	2.0
	소계	20.4	9.2	50.3	19.5	12.2	8.8	12.8	17.2	4.6	5.3	4.9	8.7
사업외 소득	노동 및 임금	73.0	63.0	27.2	54.6	43.9	40.2	28.9	30.4	66.5	66.7	64.4	53.9
	재산소득	2.3	3.5	5.2	6.4	7.4	6.4	0.8	-13.1	5.3	5.1	5.8	4.2
	소계	75.3	66.5	32.4	61.0	51.3	46.6	29.7	17.3	71.8	71.8	70.2	58.1
이전수입	4.3	24.3	17.3	19.5	36.5	44.6	57.5	65.5	23.6	22.9	24.9	33.2	
합계	100.0 (2841.4)	100.0 (2143.9)	100.0 (2492.1)	100.0 (2567.0)	100.0 (2411.1)	100.0 (2059.7)	100.0 (1651.9)	100.0 (1357.8)	100.0 (6721.5)	100.0 (6203.4)	100.0 (4492.5)	100.0 (3604.6)	

주 : ( ) 내는 농외소득의 절대치로서 단위는 우리나라의 경우千元, 일본의 경우千円임.

점은 상대적으로 제주도 농가의 移轉收入의 비중을 낮추도록 작용한다.

다섯째, 제주도 농가의 移轉收入의 比重이 陸地의 農家보다 현저히 적으며 日本보다도 적게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要因은 米麥類 中心의 陸地 農家에게는 耕地整理, 秋穀收買에 따른 政府補助가 적지 않다는 점, 日本의 경우 農家에 대한 社會保障費의 支出이 移轉收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經營耕地 規模別 제주도의 農外所得 依存度는 0.5ha 미만의 零細農만이 64.6%로 비교적 높은 水準이며 小·中·大農의 경우는 〈表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25% 수준으로 나타나 全國平均의 경우 規模가 클수록 현저히 낮아지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는 陸地에 비하여 農外所得機會가 中大農層에 상대적으로 많고 零細小農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規模別 農外所得 依存度를 日本과 비교해 보면 모든 階層에서 현저히 뒤지고 있음을 〈表 19〉에서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 2.0ha 이상의 大農도 84년, 현재 51.1%이며 특히 零細小農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통된 점은 國家나 지역에 관계없이 經營耕地의 規模가 적을수록 農家の 農外所得 依存度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적은 耕地 위에서 農業所得을 올리는 데는 收穫遞減法則의 作用으로

〈表 19〉 農外所得 依存度 比較 (規模別)

단위 { 한국: 천원  
일본: 천원 }

국가 및 지역	규모별 0.5 ha 미만 (A)	0.5~1.0 ha (B)	1.0~1.5 ha (C)	1.5~2.0 ha (D)	2.0 ha 이상 (E)	평균	규모별소득의상대격차(%)			
							A/D	B/D	C/D	E/D
제주도 (1986)	농가소득 2,841.4 농외소득 (1986) 농외소득율(%)	4,401.1 6,481.2 2,143.9 33.1 64.6	8,723.4 2,459.6 28.2	9,337.8 2,492.1 26.7	9,862.8 2,567.0 26.0	7,588.3 2,432.9 32.1				
한국 (1984)	농가소득 (1984) 농외소득 농외소득율(%)	3,904.1 4,698.8 2,411.1 43.8 61.8	5,556.8 1,503.4 27.1	6,940.0 1,651.9 23.8	8,637.6 1,357.8 15.7	5,549.1 1,849.8 33.3				
일본 (1984)	농가소득 (1984) 농외소득 농외소득율(%)	6,846.0 6,721.5 98.2	6,801.5 6,203.4 91.2	6,408.0 5,143.0 80.3	6,634.2 4,492.5 67.7	7,058.5 3,604.6 51.1	6,749.9 5,684.6 84.2			

주) 日本의 農家所得計算은 농업소득에 농외소득을 더하여 계산하고 農家總所得은 農家所得에 移轉收入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 表의 자료에서 農家所得은 農家總所得을 의미하며 農外所得은 日本 統計上의 農外所得에 移轉收入을 더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統計分類 및 計算方法과 一致시키기 위함이다.

한계가 있는데 비하여 非農業部門으로부터 구입하는 營農資材나 生必品の 구입비용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經營耕地規模가 적은 農家層일수록 農外活動, 특히 農外就業活動을 하려는 慾求가 강하게 되며, 이러한 점이 農外所得 依存度を 높이기도 作用했을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經濟發展에 따라 農外就業機會가 많아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므로 經濟發展의 정도와 零細小農의 農外所得 依存도는 깊은 正(+)의 關係를 가질 것이다. 이는 經濟發展의 수준이 앞선 日本의 例로서 유추할 수 있다.

經營耕地의 規模가 적은 農家層일수록 農外所得 依存도가 높다는 것은 規模의 차이에 따른 農家所得의 格差를 완화하는데 農外所得이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日本의 경우 經濟發展과 함께 상대적으로 賃金水準이 낮은 農村地域에 農外就業機會가 많이 削出됨으로써 84年 현재 1.5~2.0ha의 中農層에 비하여 零細小農의 所得水準이 오히려 약간 높고, 全國 農家階層間의 所得格差도 9.8% 「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所得平準化가 이루어졌다는 事實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經濟發展水準이 상대적으로 落後하여 農外就業機會가 적은 제주도의 경우 86年 현재 0.5ha 미만의 零細農의 所得水準은 中農層 所得水準의 47.1%로서 全國平均인 56.3% 보다 낮아 農家階層間의 所得不均衡度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경우 農

外所得이 農家階層間的 所得格差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다른 地域이나 日本에 비하여 그 役割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零細小農의 農外所得增大의 機會가 되는 兼業機會로서의 水産部門이나 農家副業의 開發과 農外就業機會로서의 農工團地造成, 漁港開發 등은 長期的으로 제주도의 農家階層間 所得格差를 완화하고 나아가서 都農間의 所得格差를 완화하여 풍요로운 福祉農漁村을 建設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必須條件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零細農層의 移轉收入이 다른 階層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日本에서처럼 의료보험 등의 社會保障制度의 擴充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第IV章 濟州道 農村副業團地 經營實態와 育成方案

農村副業團地는 米麥 爲主의 농업생산 결과 나타나는 계절적 유희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農村地域에서 산발적으로 經營되어 오고 있는 傳統的인 農家副業을 집단화함으로써 農家所得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1968년부터 團地形態로 育成되어 왔다. 이는 1967년에 農村振興廳에서 地域社會開發事業의 일환으로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推進하고 있던 농촌부업단지를 農水産部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조성함으로써 비롯되었다.

農家副業은 풍부한 인근 農村地域原料를 이용하여 小規模資金으로 손쉽게 農民들이 經營할 수 있다는 점에서 有利할 뿐만 아니라, 農民들이 農閑期를 이용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으며, 傳統民藝品을 開發·育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副業團地의 指定節次와 造成實績에 대해 고찰해 보고 濟州道의 農村副業團地의 經營類型 및 稼動實態를 類型別로 구분하여, 類型別 特性和 原料調達, 製品生産, 販賣 등 經營上의 問題點과 副業團地 參與農家の 意識構造를 分析함으로써 本道 副業團地의 經營合理化 方案을 모색하고 農外所得增大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第1節 農村副業團地의 推進施策과 造成現況

1968년부터 全國的으로 造成되기 시작한 副業團地는 1986년 3월말 현재 총 609개소(表1 참조)에 이르고 있으며 業種別로는 <表1-2 참조> 民俗工藝品이 가장 많은 263個所로 전체의 43%, 食料品이 181個所로 약 30%, 農水産資材가 75個所로 18%의 순이다. 한편 地域別 分布를 보면 全南이 132개소(약 22%)로 가장 많고 다음이 全北 112개소(18%), 忠南 99개소(16%)의 순으로 造成되어 있다.



〈表 1-1〉 副業團地 造成實績 및 現況

연 도 내 용	68~80	81	82	83	84	85	86 ( 計 )	비 고
	전	< 개소 > 985	16	40	128	156	131	
국	459	276	64	63	28	61	-	運 營 資金支援
제 주 도 부업 단지 조성	121 억 원	21	26	56	73	85	82	
		7	4	6	7	8	10	

〈表 1-2〉 副業團地 道別, 業種別 現況

( 86.3. 末 現在 )

道 別	業 種 別	一 般	民 俗	織 維 織 物	食 料 品	農 水 產	農 畜 產	合 計
		工 產 品	工 藝 品			資 材		
京	畿	2	13	1	5	6	-	27
江	原	10	18	4	27	7	-	66
忠	北	1	5	4	14	2	-	26
忠	南	13	40	5	23	18	-	99
全	北	6	67	7	21	11	-	112
全	南	2	53	7	49	21	-	132
慶	北	15	21	4	13	2	4	59
慶	南	3	39	2	26	8	-	78
濟	州	-	7	-	3	-	-	10
計		52	263	34	181	75	4	609

資料 : 農水産部, 農政主要指標, 1986. 5, p.105.

本道の 農村副業團地는 〈表 2〉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9년 북제주군 함덕리의 무우말랭이 團地를 시작으로 1986년 11월 현재 濟州市에 3개소, 北濟州郡 5개소, 南濟州郡 2개소, 모두 10개소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業種別로는 民俗工藝品이 7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식품가공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조성된 부업단지는 총 1,560 個所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 951 個所가 指定取消되었는데 이는 총 부업단지의 61%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副業團地 業種選定の 잘못과 原料難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의 미흡,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工業化로 代替工産品의 大量生産, 農村社會構造의 變化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表 2〉 濟州道 副業團地造成實績과 業種現況

조성년도 행정구역	81	82	83	84	85	86
제 주 시	1	2	3	3	3	3
서 귀 포 시	1					
북 제 주 군	3	1	2	3	4	5
남 제 주 군	2	1	1	1	1	2
계	7	4	6	7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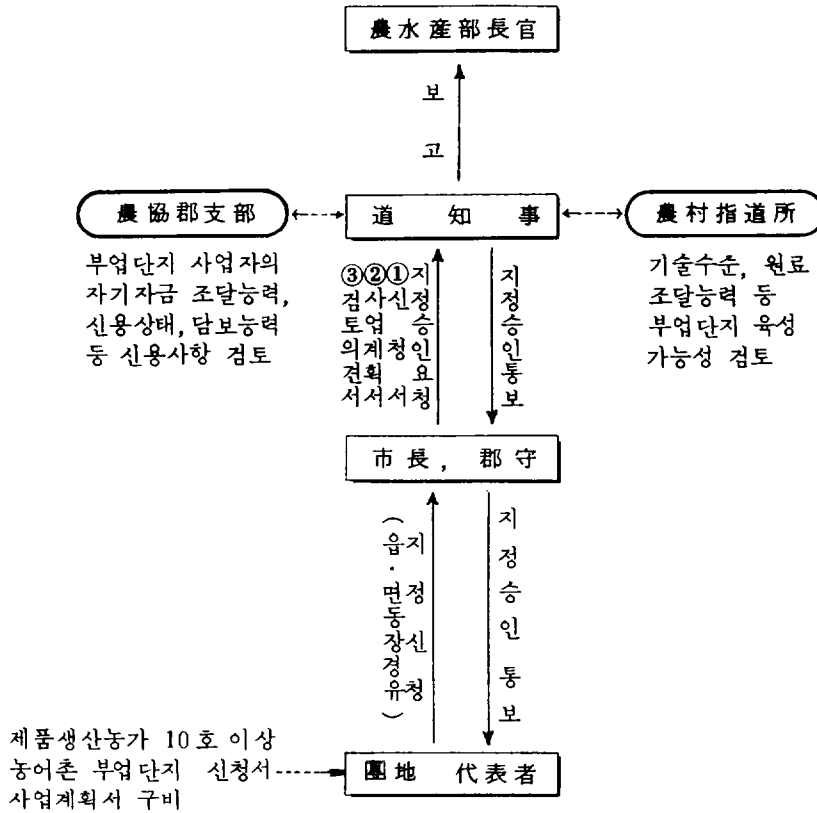
조성년도 업 종	81	82	83	84	85	86
민 속 공 예 품	2	2	4	5	6	7
식 품 가 공	2	2	2	2	2	3
농 수 산 자 재	1					
농 축 산	2					
계	7	4	6	7	8	10

資料： 濟州道 農政課

한편, 제주도의 副業團地 造成實績과 推進狀況을 보면 1981년 7個所이던 것이 이듬해인 '82년에는 4個所로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83년에는 다시 6個所로 증가하여 1986년 현재는 10個所이다. 그동안 지정 취소된 곳은 '81년에 중문 자계단지과 온평 새끼단지이며 '82년에는 월정 시설원예단지, 무릉 시설원예단지와 조수 새끼단지인데, 이와같은 부업단지 지정취소는 原料難과 代替工產品의 출현으로 인한 消費處의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을 저하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副業團地의 指定은 製品生産農家 10戶 이상의 참여로 <圖 1>과 같은 指定節次를 거쳐 造成되며 지정된 부업단지에 대하여는 施設과 運轉資金을 支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表3>과 같다.

< 圖 1 > 農村副業團地 指定節次 및 管理



< 表 3 > 副業團地 資金支援

자금지원원칙	총사업비의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성단지는 연간 3,000만원 이내 단지당 대출잔액 한도는 1억원 이내
자금지원규모	신규단지는 시설 및 운영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 기성단지는 시설 및 운영자금 포함 3,000만원 이내
용도	시설자금용도: 건물 및 기계구입 운영자금용도: 원료구입 및 생산경영비
용자조건	연리 10%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상환조건	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운영자금: 3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용자재원 및 용자대상과 요령	농업개발자금으로 부업단지 대표 또는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담보대출
용자취급사무소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조합

## 第2節 農村副業團地 類型과 特性

### 1. 調査概要

濟州道 農村副業團地에 대한 經營實態調査는 '86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10개의 부업단지를 직접 방문 副業團地代表, 總務, 生産者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設問紙에 의해 經營實態, 生産實績, 原料調達狀況, 販賣活動을 중심으로 面接調査를 實施하였다.

### 2. 副業團地の 類型과 特性

#### 1) 經營類型

農家副業經營의 類型을 區分하기 위하여 農家副業의 專業化 정도와 經營規模 그리고 副業施設額, 常時從業員數, 農家所得 중 副業所得比率, 自家勞動의 副業經營에 대한 勞動投下比率의 項目을 선정하여 任意指數構成法에 의하여 經營類型을 <表 4>와 같이 분류하였다.

<表 4> 經營類型 區分指標

구 성 항 목	評 點 基 準	經 營 類 型	
전통적 부업경영특징	지 수 구 성 문 항	부업경영 (1점)	전업경영 (2점)
수공업적자본장비 소유	부 업 시 설 액	300萬원 이하	300萬원 이상
자가노동 중심	상시고용종업원수	5인 이하	5인 이상
주업생산보완	농가소득중부업소득비율	50% 이하	50% 이상
농한기(계절적)경영	자가노동의 부업경영투 하 비 율	50% 이하	50% 이상

註) 이 分析方法은 李容晩, 金衡模, 農家副業의 類型區分 및 傳統的 農家副業 概念의 檢討, 農村經濟 第3卷 4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2, pp.54~56 참조하였음.

이와같은 方法에 의해 經營類型을 家内手工業型和 專業型的 두 유형으로 分類해 본 결과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家内手工業型은 濟州市 도련 1동의 수수비단지와 도련 2동의 죽세품단지, 화북 2동의 냉죽세품단지,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무우말랭이단지, 한림읍 귀덕 1리의 정동세품단지, 애월읍 금덕리 목각단지,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와 표선면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 등 8개 단지이며, 專業型은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미제품단지와 한림읍 귀덕리 멀구슬세품단지 등 2개 團地로 分類되었다. 專業型인 2개 단지는 모두 民俗工藝品團地로서 副業團地 代表者의 個人 事業體 性格을 띄고 있으며 참여농가는 原料調達이나 반제품 생산에 참여하여 所得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製品은 모두 濟州도 특유의 향토성을 띤 材料를 이용하여 生産하고 있는데 製品의 質이나 디자인이 우수하여 판매면에서나 稼働率面에서 양호한 편이다. 특히 團地代表가 디자인개발과 新製品開發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成長·發展할 수 있는 業種이다.

〈表 5〉 副業園地 經營類型

經營類型	評點範圍	業 種 別 數		비 고
家內手工業型	4~6점	民俗工藝品	5개소	제주시 도련 1동 수수빚자루단지, 도련 2동 죽세품단지, 화북 2동 냉줄제품단지, 북군 한림읍 귀덕리 정동제품단지, 애월읍 금덕리 목각단지  북군 조천면 합덕리, 남군 남원읍 의귀리, 표선면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
		食 料 品	3개소	
專 業 型	7~8점	民俗工藝品	2개소	북군 조천면 합덕리 띠제품단지, 한림읍 귀덕리 멀구슬제품단지

2) 稼動實態

園地의 稼動實態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여 〈表 6〉과 같이 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8個 項目 선정하여 각 項目別로 評點基準에 의하여 낮은 것에는 1점, 중간은 2점, 높은 것에는 3점을 부여하여 各 項目의 總和를 갖고 10개 단지의 稼動類型을 구분하였다.

〈表 6〉 稼動類型 區分選定 指標와 評點方法

指 標	평 점 부 여			비 고
	1 점	2 점	3 점	
1 가 동 율	50%이하	50~70%	70%이상	'85년도 호당평균 농외소득 204만원 기준 '85년도 호당평균 농가소득 574만원 기준
2 생 산 동 향	감 소	동 일	증 가	
3 현재 원자재 조달	곤란	보통	용이	
4 向後 원자재 조달	곤란	보통	용이	
5 현재 제품 판매	곤란	보통	용이	
6 向後 제품 판매	곤란	보통	용이	
7 인 근 농 촌 의 원 자 재 조 달	30%이하	30~70%	70%이상	
8 사 업 체 소				
{ 가내 수공업형 전 업형	100만원이하	100~200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300~600만원	600만원이상	

稼動類型 區分方法은 李容晚, 金洙郁, 農家副業의 稼動實態와 波及效果分析, 農村經濟, 第 4 卷 第 4 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12 을 참조하였음.

〈表 7〉 稼 動 實 態 類 型

가동실태 유형	평점범위	평점기준	부업단지
아주우수	22~24점	90%이상	머제품, 멀구슬단지
아 수	19~21	80%이상	표선면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
보 통	12~18	50~79%	수수빚자루단지, 냉줄제품단지, 목각제품단지, 정동제품, 조천 합덕리 무우말랭이단지
부 실	8~11	50%미만	죽세품단지,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

10개 園地의 稼動實態를 아주우수(평점 22~24), 우수(평점 19~21), 보통(평점 12~18), 부실(평점 8~11)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表 7〉에서 보면 아주우수단지는 2개 단지(머제품단지, 멀구슬단지), 우수가 1개 단지(표선면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 보통은 5개 단지(수수빚자루단지, 냉줄제품단지, 목각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조천면 합덕리 무우말랭이단지)이고 부실단지는 2개 단지(죽세품단지,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로 나타났다.

副業園地에 대한 副業園地 參與農家의 態度를 알아보기 위해 부업단지 참여가 農外所得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副業園地 活性化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업단지 重要度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評價項目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부업단지 참여가 農外所得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20명의 應答者중 70%에 해당하는 14명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이 20%인 4명으로 결국 부업단지 참여가 農外所得에 도움이 된다는 反應이 90%인 18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不實한 副業園地로 평가된 2개 단지인 죽세품단지와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외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表 8 참조).

〈表 8〉 副業園地參與와 農外所得增大

응답내용	아주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
응답농가수	14戶(70%)	4戶(20%)	2戶(10%)	20戶

앞으로 副業園地를 活性化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15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회원은 20%인 4명이다. 그러나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회원도 1명이 있었는데 이 역시 不實한 園地 회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부업단지가 活性化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表9 참조).

또한 부업단지를 活性化하기 위한 方案으로 기술, 디자인지도와 관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表 9〉 副業團地 活性化에 대한 態度

응답 내용	그 령 다	그저 그렇다	그 령 지 않다.	계
응답 농가수	15戶 (75%)	4戶 (20%)	1戶 (5%)	20戶

느냐는 질문에 대해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개의 不實副業團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副業의 重要性에 관한 評價는 副業團地가 生活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앞으로는 農業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表 10〉과 같이 13戶(6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냉슬제품단지, 죽제품단지, 남원과 함덕의 무우말랭이단지 등 4개 단지 참여농가 7戶 (35%)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과수원이나 특용작물 등의 농업소득 증대에 따라 부업의 重要性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

따라서 앞으로 副業團地製品에 대한 기술지도와 디자인개발, 경영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생산과의 勞動力 경합문제와 부업단지제품의 판매부진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4개 단지는 앞으로 不實團地化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表 10〉 副業團地 重要性에 대한 業종별·유형별 評價

구 분 의 견	업 종 별			가 동 유 형 별				경 영 유 형		
	민 속 공예품	식료품	계	우수	보통	부실	계	가 내 수공업	공장형	계
앞으로 농업에 전념하겠는가? 그 령 다.	4	3	7	0	3	4	7	7	0	7
그 령 지 않다.	12	1	13	3	9	1	13	10	3	13
계	16	4	20	3	12	5	20	17	3	20

### 第 3 節 農村副業團地의 生産·販賣實態와 問題點

#### 1. 生産實態

濟州道 農村副業團地 10개소 중 工場型(專業型)인 떡제품과 멀구슬제품단지를 제외한 8개 단지는 農家에서 傳統的으로 副業製品으로 생산해 오던 기존 업종을 지정한 家內手工業型이다.

민속공예품은 제품이 手作業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의 多量生産이 어려우며, 모두 常時從業員을 두지않고 一定한 作業場이 없이 各者의 주택에서 가족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수시로 생산하

고 있다. 무우말랭이는 무우 수확기인 11월부터 2월사이에 생산되고 있으며, 냉출제품, 정동제품, 죽제품, 띠제품, 멸구슬제품은 원료를 인근 농촌이나 야산에서 自生하고 있는 自然材料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냉출제품과 정동제품, 죽제품의 경우는 가까운 지역에서의 원료채취가 점차 어려워져 원거리에서 원료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規模가 영세하고 新製品이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投資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업단지 제품의 생산실태는 <表 11>에서 보는 바와같이 함덕 무우말랭이단지, 띠제품단지,

<表 11> 副業團地製品的 生産量과 副業團地 참여농가 호당평균 소득

구분 시군별	부업단지명	지정 년도	주요생산품	부업 단지 단위	총 생산량 (넵)			부업제품으로 인한 호당평균 소득 (만원)			참여 호 수 (호)	
					'83	'84	'85	'83	'84	'85	'85	'86
제주시	수수비 (도련 1동)	70	사무실용, 가 정용 수수비	정	180,541	181,900	167,600	150	132	160	101	73
	죽제품 (도련 2동)	82	구덕, 소쿠리, 삿갓, 차동, 바구니	점	23,194	23,116	24,585	160	137	170	64	64
	냉출제품 (화북 2동)	83	화병, 삼태기, 아기구덕, 과 일바구니	점	19,689	21,689	24,100	100	69	70	22	22
북제주군	무우말랭이 (조천면 함덕리)	69	무우말랭이	농	90	90	98	90	45	100	22	22
	정동제품 (한림읍 귀덕리)	83	남너모자, 바 구니, 꽃병	점	4,000	5,750	7,840	80	88	70	30	30
	띠제품 (조천면 함덕리)	84	지갑, 핸드백, 부채, 편지꽂이	점		25,550	24,850	148	200	15	15	
	목각제품 (애월읍 금덕리)	85	남박, 솔박, 전 화발침대, 등잔 대, 나막신	점			22,350		330	12	12	
	멸구슬제품 (한림읍 귀덕리)	86	지갑, 핸드백, 연필통, 휴지 통, 조립베개	점			26,000 ('86년도 생산계획)				16	16
남제주군	무우말랭이 (남원읍 의귀리)	78	무우말랭이	농	100	545	40	200	155	80	20	20
	무우말랭이 (표선면 가시리)	86	무우말랭이	농			103 ('86년도 계획)				23	23
평균								130	112	147.5	32.5	29.7



정동제품단지는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읍 의귀리의 무우말랭이단지, 제주시 도련 수수비 등 2개 단지는 生産量이 감소되고 있으며 냉출제품과 죽제품단지는 생산량이 모두 '84년에 증가하였다가 '85년에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는 545%에서 40%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부업단지 참여농가의 호당소득은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의 80 만원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10개 단지의 호당 평균소득은 147만 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團地別로는 금덕리 목각단지가 330 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0 만원인 함덕리 띠제품단지이며 가장 낮은 단지는 70 만원인 냉출제품단지와 정동제품단지이다.

< 表 12 > 副業團地別 原料調達

단지이름	생 산 유래연도	주요원료채취 기 간	원료조달 방 법	원료조달시 애로사항	원 재 료 연 중 보 관 가능성여부	주요채취 장 소
냉출제품 단지	약 40년	9 ~ 11월	인근지역에서 개별로 채취	인 근 지 역 조달 어려움	가 능	원료재배 가능성 어려움
띠 제품 단지	3년	11 ~ 12월	개별로 채취 및 공동채취	없 음	가 능	중 산 간 지 역
멀구슬 제품단지	3년	12월	대리점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채취 수매함.	멀구슬나무를 베어 내 보호초치 요망 원료조달 어려움	가 능	제 주 도 전 역
죽 제품 단지	약 230년	11 ~ 12월	공 동 채 취	향후 원료조달 이 점차 어려 움이 예상됨	가 능	주 로 교래지역
정동제품 단지	약 200년 ~ 300년	8 ~ 10월	인 근 야 산	인 근 지 역 조달 어려움	가 능	귀 덕 리 인근야산
수수비 단지	약 45년	피종 4~6월말수확 8월초~9월초 (2번 수확가능)	부락내에서 재배 및 대만 에서 구입	재배가능하나 감귤 나무와의 경합으로 면적 줄어들	가 능	제 주 시 도 련 동
목각제품 단지	너무 오래 되어 알 수 없음	필요시 수시로	인 근 지 역	원료 채취시 산림법 저촉 문제	가 능	북 애 월 면 리 금 덕 리

그런데 민속공예품의 원재료는 모두 장기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취기간에 다량 원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신제품개발과 디자인 지도,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販賣實態와 展望

副業團地製品의 販賣는 < 表 13 >에서 보는 바와같이 세 가지 形態의 流通經路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表 13〉 副業團地製品的 流通經路

유통경로 형태	부업단지
부업농가→소비자	수수비, 함덕 무우말랭이
부업농가→중간상인→소비자	수수비, 냉출제품, 띠제품, 정동제품
부업농가 → 도매상 → 소매상→소비자	멀구슬제품, 목각제품, 수수비, 정동제품, 죽제품, 무우말랭이

특히, 정동제품단지와 남원읍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의 경우는 농협을 통해 판매를 했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했으며 표선면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와 조천면 함덕리 무우말랭이단지는 共同販賣形式을 취하고 있다.

한편, 製品販賣上의 險路와 앞으로의 販賣展望을 조사한 결과를 〈表 14〉에서 살펴보면 현재 제품판매에 애로가 없는 단지는 수수비단지 등 5개 단지이며 판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는 죽제품단지 등 4개 단지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제품판매 전망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함덕 무우말랭이단지는 일본으로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상의 애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죽제품단지 등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14〉 副業團地製品的 販賣動向

판매동향 구분	곤란	약간용이(보통)	용이
現在제품판매	죽제품단지, 남원 의귀 무우말랭이단지, 목각제품단지, 정동제품단지	함덕 무우말랭이단지	수수비단지, 냉출제품단지, 띠제품단지, 멀구슬제품단지, 표선 가시 무우말랭이단지
향후 제품 판매 전망	죽제품단지, 목각제품단지, 남원 의귀 무우말랭이단지, 정동제품단지	함덕 무우말랭이단지	냉출제품단지, 띠제품단지, 멀구슬제품단지, 표선 가시 무우말랭이단지

판매대금 결제 방법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상판매인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다.

### 3. 副業團地 運營上的 問題點

#### 1) 生産과 流通上的 問題點

부업단지 운영상 根本的 問題는 부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工業化的 進展에 따른 代替工産品의 大量生産으로 品質과 價格面에서 市場性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資本과 技術의 영성으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디자인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2) 副業團地에 대한 行·財政 支援上的 問題點

##### ① 副業團地 指定節次 및 技術指導上的 問題點

현행 行·財政 支援體系에 따르면 부업 단지를 지정할 때 技術水準 및 原料調達能力, 부업단지 제품의 流通可能性에 대한 검토와 기술지도도를 관할 농촌지도소가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농산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무우말랭이 副業團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나머지 7개 단지의 민속공예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될 뿐 아니라 제품이나 디자인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기술지도도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② 副業團地製品에 대한 弘報活動의 未洽

부업단지제품의 販賣不振 이유 중의 하나로 販賣促進을 위한 홍보활동의 미흡을 들 수 있다.

10개 단지 모두 판매촉진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弘報活動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민속공예품 대부분이 원료 자체가 제주에서만 생산되어 향토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잠재경쟁력이 있고 토산품으로서의 成長可能性이 매우 높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촉활동이나 弘報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업자들도나 관광객들에게 인식이 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업단지별 운영상의 隘路事項과 건의사항을 <表 15>와 같이 정리하여 보면 원료조달, 판로 지원, 디자인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수수비단지의 경우는 수수의 생산부족으로 원료조달이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대만산 수수를 부산에 있는 중간수입상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원료의 질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부업단지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行政的 支援策이 바래지고 있다. 판로상의 애로와 디자인개발은 특히 죽세품단지의 경우가 심각한 실정인데 플라스틱제품의 등장과 전남 담양지방의 죽세품의 대량 반입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어 많은 생산제품이 재고로 남아 있다.

〈表 15〉 副業團地別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지원 건의사항 요약

업종	부업단지	운영상 애로사항	지 원 건 의 사 항
민 속 공 예 품	수수비단지	· 원료조달 · 제품판매	1. 수수의 생산부족으로 제품의 원료인 수수를 대만에서 수입된 것을 중간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어 이를 단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2. 관청이나 학교 등 관공서에서 필요한 수수비를 부업단지와 직접 계약 구매를 희망
	냉출제품단지	· 인접지역의 원료 채취 어려움 · 제품판매	부업단지 대표자 인솔하에 10月~11月 사이 한라산 일정지역에서 냉출채취 허가 요망
	목각제품단지	· 제품판매 · 원료조달	間 伐 許 可
	정동제품단지	· 제품판매 · 원료조달	일정지역이나 일정기간에 부업단지 생산농가에 한해 한라산에서 채취 허용 요망
	멀구슬제품단지	·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	공동판매장 설치와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영농자금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망
	띠제품단지	·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	"
식 료 품	축세품단지	· 제품판매 · 디자인 개발지원	판매지원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함덕 무우말랭이단지	· 제품판매	판 매 지 원
	남원 의귀리 무우말랭이단지	"	"
	표선 가시리 무우말랭이단지	"	"

第 4 節 農村副業團地의 經營合理化 方案

1. 副業團地 指定檢討 및 사후 지원체계의 강화

副業團地의 지도와 관리를 위해 부업단지별로 시·군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분기 1회 이상, 군수는 월 1회 이상 현지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고 매분기마다 事業實績 보고서를 도지사는 농·수산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연 1회 부업단지 評價會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조달 문제와 시장여건 변화로 인한 販賣不振, 기타 副業團地 운영상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문제점들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동안 부업단지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기술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받은 단지는 10개 단지 중 2개 단지 뿐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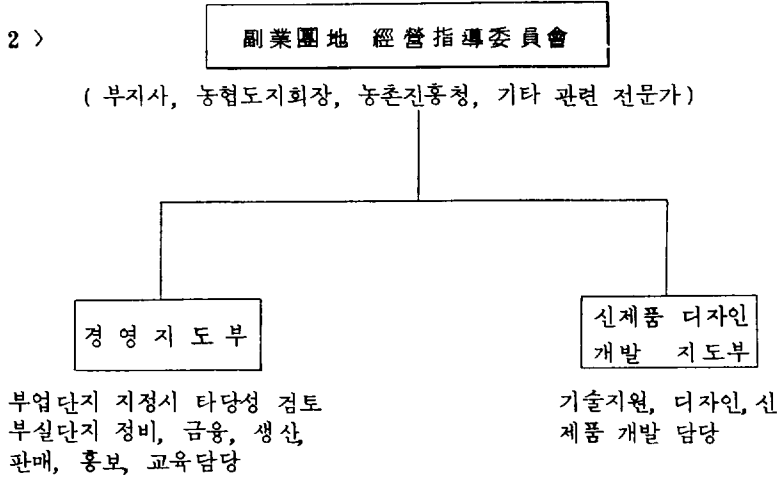
副業團地의 活性化를 위해 지원시책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農業者 관련제품인 경우는 판매문제, 민속공예품인 경우에는 新製品開發, 디자인개발, 판매관련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0개 단지 중 6개 단지 대표자들이 技術指導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도 받기를 원하는 분야는 디자인개발(4개 단지:죽세품단지, 띠제품단지, 멀구슬제품단지, 목각단지)과 판매관련분야(2개 단지:정동제품단지, 녕출제품단지)인데 현행 부업단지 지원체제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도를 받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속공예품 7개 단지중 民俗工藝組合에 가입되어 있는 띠제품단지와 멀구슬제품단지는 優秀民俗工藝品生産業體로 中小企業振興工團 산하의 디자인포장센터로부터 디자인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업단지제품의 제품개발과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민속공예품 생산 부업단지를 모두 민속공예조합에 가입시키고 디자인 포장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 수와 지도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와같은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원 기구를 제주도 자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特定製品 存立의 社會·經濟的 妥當性이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제품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특히, 부업단지제품 중 민속공예품은 효과적인 新製品計劃과 개발의 重要性이 크며 제품도 사람과 같이 수명주기를 갖고 있어 成長하고 쇠퇴하여 궁극적으로는 폐기되기 때문에 반복구매를 위해서도 좋은 품질의 상품이 개발·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副業團地로 지정되었다가 不實團地로 지정 취소되는데 따르는 行·財政上의 낭비를 제거하고 아울러 부업단지의 效率的 운영을 위해 副業團地 지정에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후에도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道知事 산하에 <圖 2>와 같이 가칭 “副業團地 經營指導委員會”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여기에 부업단지 指定時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와 부실단지 정비대책, 금융, 생산, 판매, 홍보, 교육 등에 관한 諸般業務를 담당하는 「經營指導部」와 技術支援, 디자인,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하는 「新製品 디자인 開發指導部」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주도의 10개 부업단지제품 중 9개 단지 제품이 製品生産을 위한 技能습득기간이 6個月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제품의 시장잠입 가능성은 크다. 때문에 市場環境變化에

< 圖 2 >



적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지도는 더욱 필요하다.

經營類型 분석에서는工場型이稼動類型分析에서는專業型的 형태를 띠고 있는 단지가 신제품과 디자인개발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가장 우수한 단지로分析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앞으로副業園地運營의活性化를 위해 기술지원과 판매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한 부업단지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2. 副業園地 代表者들의 教育強化

부업단지 대표자들은 대부분 그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개발위원, 이장 등의 직책을 맡은 적이 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겸직하고 있다.

그런데副業園地 代表의 指導力이나 부업단지에 대해 가지는 의욕 및 관심이 부업단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육지부의 우수부업단지 시찰이나 교육을 통해 지도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유능한 園地代表 사망으로 부업단지가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지정이 취소된 事例가 있고(1980년·貝殼加工園地) 냉죽제품단지도 단지제품의 共同販賣로 판매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단지가 운영되었으나 단지대표의 사망후 個別販賣로 전환되면서 단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조천면 함덕리 무우말랭이단지도 園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副業園地經營指導委員會”를 설치·육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3. 副業團地製品 商標標識

商標란 販賣業者나 판매상의 제품이나 서서비스를 식별하고 競爭業者나 競爭商人의 것과 구별짓기 위해 사용되는 名稱, 單語, 象徵文, 디자인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상표는 消費者들이 他製品과 쉽게 識別할 수 있도록 하고 廣告活動의 役割도 하며 유사품을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

현재 멀구슬제품단지의 제품에는 상표를 使用하고 있으나 <圖 3> 다른 단지제품에는 導入이 안된 실정이다. 물론 못이나 석탄 등 産業用 原資材는 製品差別化가 어렵기 때문에 商標設定이 곤란한 점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부업단지제품에 상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設定이 가능한 제품에는 상표를 설정토록 지도한다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圖 3> 멀구슬제품단지 상표



### 4. 副業團地製品에 대한 促進活動의 強化

부업단지제품에 대한 促進活動은 행정기관의 弘報強化와 부업단지 조합자체의 廣告活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의 副業團地製品에 대한 弘報強化方案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觀光産業振興을 위한 홍보활동에 추가하여 道觀光課에서 발행하는 관광제주 팜프렛에 부업단지제품을 소개하는 方法과 관광성수기에 제주지역의 주요 매스컴기관(제주 MBC, KBS, 제주신문사)과의 협조하에 副業團地製品을 소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접하는 관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 관광버스운전기사, 안내원들에게 교육하여 홍보요원화 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택시나 관광버스에 비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濟州道 副業團地組合에서도 廣告活動의 일환으로 각 토산품점에서 觀光客에 대한 購買時點廣告(P.O.P. 광고)를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제주도내 토산품점에서 민속공예품에 대한 내력이나 설명서는 물론 관련 廣告物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의 積極活用이 요망된다.

5. 共同販賣場 設置

부업단지 생산제품에는 향토성이 짙고 실용성도 있어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토산품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를 政策的으로 지원하고 특히 濟州道 副業團地製品을 판매하는 共同販賣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공동판매장에서 부업단지 제품을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직판한다면 제품의 質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중간 마진을 없애므로써 價格이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表 16〉 副業團地 活性化를 위한 課題와 解決方案

課 題	解 決 方 案
○ 부업단지 선정시 기술 타당성 검토의 실제화	○ 부업단지 경영지도위원회 설치 (전문, 기술적 육성 가능성 검토) 공·민예품인 경우 타부서로 이관
○ 부업단지 경영지도	○ 부업단지 경영지도위원회 설치 (경영지도부 담당)
○ 민속공예품 생산 부업단지의 기술지도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부업단지 경영지도위원회 설치 (제품 디자인 개발부)
○ 부업단지 대표자 운영능력 육성 성과 교육	○ 부업단지 경영지도위원회 경영지도부 설치
○ 부업단지 제품의 판매지원	○ 부업제품 및 특산물 공판장 설치 (관광코스 지정)
	○ 부업제품 홍보강화 (MBC, KBS, 제주신문, 홍보용 팸플렛)
	○ 부업단지 조합의 판매 촉진 활동
	○ 부업제품중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소모 가능 품목이면 수의 계약 연결방안 검토
	○ 부업제품의 상표설정과 부업제품 설명서 사용
○ 부업단지 원료 조달문제	○ 자연채취 부업단지 원료인 경우 부업단지 회원들의 채취장소 확장 허용



사실 副業團地 제품중 일부는 生産價格과 消費者價格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不滿要因이 되고 있다.

단지에서 生産되는 제품수가 약 40여 종류 밖에 안되기 때문에 觀光客들을 대상으로한 판매장의 제품구색으로는 빈약한 편이므로 副業團地製品 뿐만 아니라 제주의 特産物 중 몇 품목을 추가하여 함께 진열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副業團地 活性化를 위한 課題와 解決方案을 要約하면 <表 16>과 같다.

앞으로 副業團地 指定時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民俗工藝品 관련 부업단지인 경우, 제주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향토성 짙은 원재료를 使用하고 長期的으로 原料調達에 어려움이 없고 오랜 기술 축적으로 쉽게 規倣製品의 잠입가능성이 적으며, 市場性이 풍부한 업종을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農産物 관련 副業團地의 경우는 生産製品 需要의 所得彈力性을 고려해야 하고 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증대가 가능하거나 제주 이외 지역의 생산량에 副業團地製品이 별 지장을 받지 않는 業種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가 觀光地로서 계속적인 成長이 이루어질 것인바,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農外所得 增大의 연계를 위해 團地製品의 觀光商品化의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副業團地에 대한 적극적인 技術 및 經營指導와 行·財政支援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할 수 있는 副業製品을 발굴하여 새로운 副業團地造成을 위한 지속적인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 第 V 章 濟州 特産物의 市場與件 分析과 特産物 開發方向

特産物이란 特定地域에서만 生産되는 原料나 素材로 만든 工産品이나 民俗工藝品과 그 地域에서 많이 生産되는 農水産物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意味에서 볼 때 特産物은 特定地域에서만 生産 가능한 것으로 그 地域에서 生産 또는 加工되어 流通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濟州觀光産業의 發展에 따라 <表 1>에서와 같이 來道한 觀光客의 數는 '81年 기준으로 年평균 53%의 增加를 보였고, 觀光收入도 年평균 113.9%가 增加하여, 1985年 현재 115,717 백만원으로 濟州地域經濟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濟州道長期發展計劃에도 濟州道가 國內觀光地로서 뿐만 아니라 國際觀光地로 成長하기 위한 投資가 지속될 것으로 되어 있어, 그와 關聯産業으로서 農家所得增大에 기여할 수 있는 特産物을 開發하는 것은 중요한 政策課題라고 할 수 있다.

本 研究는 주로 濟州地域에서만 生産이 가능한 民俗工藝品과 農水産物중 주로 濟州地域에서 많이 生産되어 流通되고 있는 特産物에 대한 一般적 考察과 그에 대한 주요 시장인 觀光客들에 대한 購買行動 및 不滿要因을 分析하고, 앞으로의 特産物 開發方向과 課題 그리고 새로운 所得源으로서의 자리짓에 대한 開發 妥當性 檢討를 중심으로 研究하였다.

또한 流通實態分析을 위해서 觀光客들이 주로 購入한 土産品과 특히 副業團地制品에 대해서는 土産品店에서의 陳列實態와 제품구색, 價格實態(특히 價格差異)를 제주시 14個所와 주요관광지 土産品店 4個所 총 18個所를 임의로 選定하여 調査를 실시하였다.

〈表 1〉 來道한 觀光客과 觀光收入

年 度		'81	'82	'83	'84	'85
區 分						
觀光客	內 國 人	682,778	815,831	980,028	1,168,425	1,249,026
	外 國 人	41,825	44,503	44,998	48,818	73,676
	合 計	724,603	860,334	1,025,026	1,217,243	1,332,702
	平均增加率(%)	100.0	118.7	141.5	168.0	183.9
觀光收入 (백만원)	內 國 人	—	54,951	63,263	—	85,476
	外 國 人	—	16,341	21,088	—	33,241
	合 計	42,485	62,301	84,351	101,213	115,717
	平均增加率(%)	100.0	146.6	198.5	238.2	272.4

자료 : 濟州統計年報(1986年)

濟州 特産物의 種類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藝品, 農産物, 水産物, 畜産物, 林産物, 手工藝品 등 多様하다. 農水産物 中에는 濟州地域 이외의 다른 地域에서는 生産하기 어려운 種類들도 있으며, <表3>과 같은 工藝品 中에서도 앞으로 製品 開發과 技術指導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유망한 品目들이 있다.

<表2> 濟州 特産物의 種類

部 門 別	種 類
工 藝 品	돌하르방, 죽세품, 산호제품, 목각제품, 밀구슬제품, 정동제품, 띠제품, 말총제품 등
農 産 物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등
水 産 物	소라, 전복, 옥돔, 자리, 감태, 톳 등
畜 産 物	벌꿀, 로얄제리, 화분립 등
林 産 物	표고버섯
手 工 業 品	수담요, 수스웨터 등

<表3> 濟州 特有의 土産品 分類와 品目

分 類	品 目
木 刻 製 品	해녀, 물허벅, 하르방, 나막신, 켜, 뒤주, 방망이, 남박, 솔박, 등잔대,
珊 瑚 製 品	목걸이, 재떨이, 브로우치, 파이프, 반지
石 製 品	돌하르방, 맷돌, (연자)방아, 재떨이, 절구, 돌거북, 해녀
劊 製 品	짚, 어류, 새우
貝 殼 製 品	목걸이, 브로우치, 반지, 귀걸이, 단추, 열쇠고리, 보석함, 사진틀, 재떨이
石膏 및 호마이카	재떨이, 화병, 스탠드, 수반, 보석함
草蓆 및 竹製品	머모자, 머부채, 머편지꽃이, 머핸드백, 밀구슬베개, 밀구슬지갑, 밀구슬등, 넣출화병, 넣출삼태기, 넣출바구니, 정동모자, 대바구니, 아가구덕, 차룻, 샷샷
말 총 製 品	탕건, 바둑무늬 모자, 양태식 모자, 핸드백

### 第 1 節 調査의 概要

特産物의 주요시장인 觀光客들의 購買行動 分析과 特産物 開發方向 및 分析을 위하여 '86. 8~'86.11 까지 약 4 개월에 걸쳐 훈련된 調査員이 예비조사를 거쳐 完成된 設問紙를 가지고 공항과 부두, 호텔 등에서 內國人 觀光客 220名과 外國人 觀光客 80名, 총 300名을 대상으로 調査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應答紙 內國人 15名, 外國人 5名에 대한 것을 제외한 총 280매를 分析資料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內國人의 人口統計的 構成은 <表 4>와 같다.

<表 4> 應答者의 人口統計的 構成

구분	구 성	명 (%)	계	구분	구 성	명 (%)	계
성 별	남	136 (66.3)	205	여 행 목적별	신혼여행	106 (51.7)	205
	여	69 (33.7)			휴 가	20 ( 9.8)	
연령별	20대	112 (55.2)	205		효도관광	14 ( 6.8)	
	30대	49 (23.6)			친구들끼리	10 ( 4.9)	
	40대	22 (10.6)			기 타	55 (26.8)	
	50세 이상	22 (10.6)		직 업	학 생	22 (11.2)	196
여 행 횟수별	1회	121 (59.6)	가정주부		43 (21.9)		
	2회	48 (23.6)	회사원		62 (31.6)		
	3회 이상	34 (16.8)	공무원		16 ( 8.2)		
			상업		22 (11.2)		
			기 타	31 (15.9)			

### 第 2 節 特産物에 대한 購買行動 分析

#### 1. 內國人 觀光客

##### 1) 購入 土産品

內國人 觀光客들이 購入한 特産物 中 民俗工藝品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購入하는 土産品이 돌하르방으로 205名의 觀光客中 43.9%에 해당하는 90名이 購入하였으며, 다음이 산호제품으로 51名(24.9%), 기념타올이 20名(9.8%), 副業團地製品은 47名으로 22.9%인데, 그 중에는 목각제품이 30名(14.6%)으로 가장 많았고, 정동제품이 8名(3.9%), 냉죽제품, 띠제품은 각 1名이었다.

대부분의 副業團地製品들이 原料가 濟州地域에서만 採取 可能하고 郷土性이 풍부하며, 全國民藝品競進大會에서 入賞하는 등 觀光商品으로서의 價値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販賣가 부진한데, 그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新製品과 디자인 開發 미흡, 弘

報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觀光産業 發展과 農外所得增大의 연계를 위한 副業團地製品 販賣增進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5> 참조.

<表 5> 購入 土產品

구입 토산품	돌하르방	산호제품	기념 타올	부업단지 제품							기 타	합 계
				목각 제품	정동 제품	멀구슬 제품	죽제품	띠제품	넝줄 제품	계		
인원	90명 (43.9%)	51명 (24.9%)	20명 (9.8%)	30명 (14.6%)	8명 (3.9%)	4명 (2.0%)	3명 (1.5%)	1명 -	1명 -	47명 (22.9%)	15명 (7.3%)	223명

2) 購入農産物

農水産物 중에서는 50.7%인 104명(로얄제리 56명 27.3% 포함)이 꿀을 購入하였고, 파인애플 91명(44.4%), 표고버섯 28명(13.7%), 옥돔 20명(9.7%) 순으로 나타났다.

꿀이나 로얄제리를 購入한 消費者를 性別로 보면, 男子가 44.9%에 해당하는 71명, 女子가 34.7%인 32명으로 나타나 男子쪽이 꿀을 더 많이 購入했다. 특히 新婚夫婦중 71%에 해당하는 76명이 꿀이나 로얄제리를 購入하여, 新婚부부가 가장 選好하는 特産物로 分析되었다 <表 6> 참조.

<表 6> 購入 農水産物

구입 특산물 (농수산물)	감귤	파인애플	표고버섯	꿀			옥 돔	계
				보통꿀	로얄제리	계		
인원(%)	18명 (8.8%)	91명 (44.3%)	28명 (13.6%)	48명 (23.4%)	56명 (27.3%)	104 (50.7%)	20명 (9.7%)	255명

따라서, 지금 잡꿀로 혼합해서 販賣하고 있는 유채꿀과 감귤꿀은 濟州에서만 채취되는 것이므로 特産物로 區分하여 販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特産物 購入 理由

特産物 購入理由로는 전체응답자 184명중 147명인 86.0%가 선물을 위해서 購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물은 주로 부모님(57.3%)에게 하며, 친척(22.2%), 주례(6.9%) 순으로 分析되었다.

旅行回數別로 보면 처음 온 계층은 87.5%가 선물을 위해서, 두번째 온 계층은 84.6%가,

3회 이상은 86.7%가 선물을 위해서 特産物을 購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新婚夫婦 107名中 78.5%에 해당하는 84名도 선물을 하기 위해 特産物을 구입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앞으로 特産物 開發을 위한 方向設定에 중요한 시사가 된다고 하겠다 <表7> 참조.

<表7> 特産物 購入 理由

구분 구입이유	연 령 별				計	여행 횟수별			計
	20	30	40	50		1회	2회	3회이상	
부 모 님	50 (61.0%)	36 (58.1%)	7 (58.3%)	5 (33.3%)	98 (57.3%)	69 (53.9%)	15 (57.7%)	18 (60.0%)	102 (55.4%)
친 척	15 (18.3%)	15 (24.2%)	2 (16.7%)	6 (40.0%)	38 (22.2%)	33 (25.8%)	6 (23.1%)	8 (26.7%)	47 (25.6%)
주 례	9 (11.0%)	2 (3.2%)	—	—	11 (6.5%)	10 (7.8%)	1 (3.8%)	—	11 (6.0%)
기 념	8 (9.7%)	9 (14.5%)	3 (25.0%)	4 (26.7%)	24 (14.0%)	16 (12.5%)	4 (15.4%)	4 (13.3%)	24 (13.0%)
計	82 (48.0%)	62 (36.3%)	12 (7.0%)	15 (8.7%)	171	128 (69.6%)	26 (14.1%)	30 (16.3%)	184

$X^2 = 13.8555$ ,  $df = 9$ ,  $P = 0.1275$

$X^2 = 3.1219$ ,  $df = 6$ ,  $P = 0.7933$

4) 特産物에 대해 알게된 情報源

特産物에 대해 알게된 정보원으로는 全體應答者 128名中 36.7%가 運轉技士나 觀光案内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혼자서 둘러보기가 33.6%가, TV, 新聞을 통해서가 20.3%, 觀光案内 팸플릿(0.8%)과 친구에 의한 경우(6%)는 매우 적었다.

<表8> 特産物에 대해 알게된 情報源

연령	정보원	TV, 신문	친 구	혼 자 서 들러보고	운전기사, 관광안내원	관광 안내 팸플렛	計
20		11 (18.0%)	6 (9.8%)	13 (21.3%)	30 (49.2%)	1 (1.6%)	61
30		7 (16.3%)	1 (2.3%)	18 (41.9%)	17 (39.5%)	—	43
40		4 (36.4%)	1 (9.1%)	6 (54.5%)	—	—	11
50		4 (30.8%)	—	6 (46.2%)	3 (23.0%)	—	13
計		26 (20.3%)	8 (6.3%)	43 (33.6%)	50 (39.1%)	1 (0.7%)	128

$X^2 = 19.3733^{**}$ ,  $df = 12$ ,  $P = 0.0799$

\*  $P < 0.10$

따라서 運轉技士나 觀光案内員들이 잘 모르고 있는 副業團地製品은 소개될 기회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혼자서 둘러보고 사는 계층인 경우도 副業團地 製品에 대한 說明書가 전혀 없고, 弘報나 其他의 販賣促進活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8> 참조.

5) 購入商店 選擇理由

購入商店 選擇理由로 175 名의 應答者中 52%에 해당하는 53 名이 스스로 特産品 商店을 선택했으며, 처음 濟州에 온 觀光客中 49.5%(54 名)가 택시 運轉技士의 추천과 觀光會社 소개로 이루어졌다 <表 9> 참조.

그런데 土産品店間의 過當競爭으로 運轉技士에게 알선료를 支給하면서 顧客을 誘致하고 있는데 이 費用이 販賣價格에 加算되기 때문에 特産物 價格이 너무 비싸다고 觀光客들이 不滿을 표시하고 있다.

<表 9> 購入商店 選擇理由

구입상점선택이유 여행횟수	택시기사 추천	관광회사 소개·알선	스스로	여행 다녀온 친구 소개	計
1 회	24 (22.0%)	30 (27.5%)	53 (48.6%)	2 (1.9%)	109
2 회	7 (19.4%)	11 (30.6%)	17 (47.2%)	1 (2.8%)	36
3 회 이상	4 (13.3%)	5 (16.7%)	21 (70.0%)	—	30
計	35 (20%)	46 (26.3%)	91 (52.0%)	3 (1.7%)	175

$$X^2 = 5.2906, \quad df = 6, \quad P = 0.5071$$

6) 特産物에 대한 態度 分析

(1) 價格

特産物 價格이 비싸다고 느낀 계층이 전체의 59.8%나 되었는데, 저렴하다고 응답한 계층은 불과 8%였다.

價格에 대한 性別 態度分析에서는 女子(58.2%)가 男子(63.2%)보다 더욱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고 또한 연령별 分析에는 비싸다고 느낀 비율이 20代가 61.2%, 30代가 68.0%, 40代는 57.1%, 50代는 30.4%로 30代가 가장 부정적인 態度를 보였다. 여행 횟수별 分析에서는 特産物 價格이 비싸다고 느낀 계층이 1회가 55.9%, 2회가 63.0%, 3회 이상이 68.6%로 제주에 여행 온 횟수가 많을수록 가격에 대해 더욱 비싸다고 느꼈다 <表 10> 참조.

〈表 10〉 特産物의 價格에 대한 態度

구분	성 별		계	연 령 별				계	여행 횟수별			계
	남	여		20	30	40	50		1 회	2 회	3 회 이상	
아 주 비싸다	19 (14.2%)	21 (30.9%)	40 (19.8%)	17 (16.5%)	8 (16.0%)	6 (28.6%)	5 (21.7%)	36 (18.3%)	17 (14.4%)	9 (19.6%)	13 (37.1%)	39 (19.6%)
비싸다	59 (44.0%)	22 (32.4%)	81 (40.1%)	46 (44.7%)	26 (52.0%)	6 (28.6%)	2 (8.7%)	80 (40.6%)	49 (41.5%)	20 (43.5%)	11 (31.4%)	80 (40.2%)
보 통	44 (32.8%)	20 (29.4%)	64 (31.7%)	32 (31.1%)	12 (24.0%)	8 (38.1%)	12 (52.2%)	64 (32.5%)	42 (35.6%)	13 (28.3%)	8 (22.9%)	63 (31.7%)
저 령	12 (9.0%)	5 (7.3%)	17 (8.4%)	8 (7.7%)	4 (8.0%)	1 (4.7%)	4 (17.4%)	17 (8.6%)	10 (8.5%)	4 (8.6%)	3 (8.6%)	17 (8.5%)
계	134 (66.3%)	68 (33.7%)	202 (100%)	103 (52.3%)	50 (25.4%)	2 (10.7%)	23 (11.6%)	197	118 (59.3%)	46 (23.1%)	35 (17.6%)	199

$X^2=8.1939^*$ ,  $df=3$ ,  $P=0.0421$      $X^2=22.1891^{***}$ ,  $df=9$ ,  $P=0.0083$      $X^2=9.5675$ ,  $df=6$ ,  $P=0.1441$   
 $^*P < 0.10$ ,     $^{***}P < 0.01$

(2) 디자인

特産物中 民俗工藝品의 디자인에 대한 態度 分析은 전체적으로 29.5%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좋다고 응답한 관광객은 19.5%에 불과했다〈表 11〉참조.

〈表 11〉 特産物의 디자인에 대한 態度

구분	성 별		계	연 령 별				계	여행 횟수별			계
	남	여		20	30	40	50		1 회	2 회	3 회 이상	
아 주 좋지 않다	7 (5.3%)	2 (3.0%)	9 (4.5%)	4 (3.9%)	5 (9.8%)	-	-	9 (4.6%)	5 (4.3%)	3 (6.4%)	1 (2.9%)	9 (4.6%)
좋지 않다	38 (28.8%)	12 (17.6%)	50 (25.0%)	26 (25.5%)	16 (31.4%)	4 (19.0%)	3 (14.3%)	49 (25.1%)	27 (23.3%)	13 (27.7%)	9 (26.5%)	49 (24.9%)
보 통 이 다	61 (46.2%)	41 (60.3%)	102 (51.0%)	54 (52.9%)	21 (41.2%)	14 (66.7%)	10 (47.6%)	99 (50.8%)	56 (48.3%)	26 (55.3%)	19 (55.9%)	101 (51.3%)
좋다	26 (19.7%)	13 (19.1%)	39 (19.5%)	18 (17.6%)	9 (17.6%)	3 (14.3%)	8 (38.1%)	38 (19.5%)	28 (24.1%)	5 (10.6%)	5 (14.7%)	38 (19.2%)
계	132 (66%)	68 (34%)	200	102 (52.3%)	51 (26.3%)	21 (10.7%)	21 (10.7%)	195	116 (58.9%)	47 (23.9%)	34 (17.2%)	197

$X^2=6.9787^*$ ,  $df=3$ ,  $P=0.0725$      $X^2=11.8999$ ,  $df=9$ ,  $P=0.2190$      $X^2=4.9551$ ,  $df=6$ ,  $P=0.5495$   
 $^*P < 0.10$



(3) 包裝

特産物의 포장에 대한 態度分析에서는 전체 40%가 좋지 않다는 否定的인 態度를 보였으며 좋다는 응답자는 총 197명중 30명으로 15.2%에 불과했다.

男·女別 態度分析에서는 남자 중에 43.4%가, 여자 중에는 33.8%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여 남자들이 더욱 포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으며 연령별 분석에는 20代 37.3%, 30代 48%, 40代 52.6%가 좋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50代 이상은 14.3%로 포장에 대한 불만율이 가장 적었다.

또한 여행 횟수별 분석에서는 1회가 38.5%, 2회가 53.3%, 3회 이상이 32.4%로 두 번째 여행은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表 12> 참조.

<表 12> 特産物의 포장에 대한 態度

구분	성 별		계	연 령 별				계	여행 횟수별			계
	남	여		20	30	40	50		1회	2회	3회 이상	
아주 좋지 않다	10 7.8%	8 11.7%	18 9.1%	7 6.9%	5 16.0%	3 15.8%	2 9.5%	17 8.8%	10 8.8%	5 11.1%	3 8.9%	18 9.3%
좋지 않다	46 37.4%	15 22.1%	61 31.0%	31 30.4%	19 38.8%	7 36.8%	1 4.7%	58 30.2%	34 29.8%	19 42.2%	8 23.5%	61 31.6%
보통	54 41.9%	34 50.0%	88 44.7%	48 47.0%	20 40.0%	7 36.8%	12 57.1%	87 45.3%	50 43.8%	19 42.2%	18 52.9%	87 45.1%
좋다	19 12.9%	11 16.2%	30 15.2%	16 15.7%	6 4.0%	2 10.6%	6 28.7%	30 15.7%	20 17.6%	2 4.5%	5 14.7%	27 14.0%
계	129 65.5%	68 34.5%	197	102 53.1%	50 26.0%	19 9.9%	21 11.0%	192	114 59.1%	45 23.3%	34 17.6%	193

$X^2=4.1862, df=3, P=0.2440$      $X^2=11.6565, df=9, P=0.2333$      $X^2=7.1792, df=6, P=0.3045$

(4) 價格表示制

價格表示制 실시에 대한 질문에서는 濟州에 있는 대부분의 토산품점이 가격표시제 지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가 일부만 되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89명중 142명으로 75.1%나 되었고, 전품목이 되고 있다가 28명으로 14.8%였으며 10.1%는 전혀 안됐다고 응답하였다.

관광객들이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또한 가격표시가 일부 품목만 되어 있는 토산품 가격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태도가 分析되어 제주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토산품의 판

매 증대를 위해 적절한 대책과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效率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表 13〉 참조

〈表 13〉 價格表示制에 관한 態度

性別	가격표시제품	전혀 안되고 있다	일부만 되고 있다	전 품목이 되고 있다	계
남		15 (11.9%)	90 (71.4%)	21 (16.7%)	126 (66.7%)
여		4 (6.3%)	52 (82.5%)	7 (11.2%)	63 (33.2%)
계		19 (10.1%)	142 (75.1%)	28 (14.8%)	189

$\chi^2 = 2.9546$  ,  $df = 2$  ,  $P = 0.2293$

2. 外國人 觀光客 (日本人)

外國人 觀光客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日本人 觀光客 80명을 대상으로 특산물 구입에 대해 調査했는데 그중 불성실한 응답지 5매를 제외하고 75매를 分析資料로 이용했는데 人口統計的 構成은 〈表 14〉와 같다.

日本人 觀光客의 性別 구성비는 남자가 68명으로 90.7%였고, 여자는 7명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주요 연령층은 75명중 50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8.7%, 30대가 21.3%로 40세 이상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분포는 회사원이 50%로 가장 많았다. 여행 횟수별로는 처음 온 사람이 53명(70.7%)였으며, 2회 이상이 22명(29.3%)이었다〈表 14〉참조

〈表 14〉 日本人 觀光客의 人口統計的 構成

구분	구 성	명 (%)	계	구분	구 성	명 (%)	계
성 별	남	68 (90.7%)	75 (100%)	여행횟수	처 음	53 (70.7%)	75 (100%)
	여	7 ( 9.3%)			2회이상	22 (29.3%)	
연령별	20대	10 (13.3%)	75 (100%)	직 업	회 사 원	38 (50.7%)	75 (100%)
	30대	16 (21.3%)			상 업	9 (12.0%)	
	40대	14 (18.7%)			농 업	8 (10.7%)	
	50세 이상	35 (46.7%)			공 업	3 ( 4.0%)	
				기 타	17 (22.7%)		

1) 購入 特産物

日本 觀光客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산물은 75명의 관광객중 인삼이 38명 구입하여 전체의 50.7%나 되었고 돌하르방이 21.3%(16명)이었으며 기타도 29.3%이었다. 제주 특산물 중에서 돌하르방 이외에 산호(9.3%)나 꿀(6.7%)을 구입하는 관광객은 매우 적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주 특산물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홍보 및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 구입 장소는 일반 면세점을 이용한 관광객이 36명으로 48%, 호텔내 상점과 숙소 근처 18명으로 각각 24%로 나타났다<表 15> 참조.

<表 15> 購入 特産物과 購入場所(日本人)

구입 특산물						구입 장소					
돌하르방	인삼제품	산호제품	꿀	기타	계	일반 면세점	숙소 근처	호텔내 상점	관광지	공항	계
16명 (21.3%)	38명 (50.7%)	7명 (9.3%)	5명 (6.7%)	22명 (29.3%)	88명	36 (48%)	18 (24%)	18 (24%)	12 (16%)	6 (8%)	90

※ 구입 특산물이 여러개일 수도 있고 구입장소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 )의 비율은 75명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特産物 購入動機

일본인 관광객들이 특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전체의 56.6%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이며 개인적 기념으로 구입하는 관광객이 43.4%였다.

연령이 젊을수록 특산물을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서 20대가 80%, 30대가 64.7%, 40대가 53.3%였으며 제주에 여행 왔던 횡수가 많을수록 선물하기 위해 특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16> 참조.

<表 16> 特産物 購入動機(日本人)

횡수, 연령별 구입동기	1 회	2 회이상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계
선물하기 위해	11(44%)	36(62.1%)	47(56.6%)	8(80%)	11(64.7%)	8(53.3%)	20(48.8%)	47(56.6%)
개인적 기념	14(56%)	22(37.9%)	36(43.4%)	2(20%)	6(35.3%)	7(46.7%)	21(51.2%)	36(43.4%)
계	25(30.1%)	58(69.9%)	83	10(2.0%)	17(20.5%)	15(18.1%)	41(49.4%)	83

$\chi^2 = 2.3222, df = 1, P = 0.1275$

$\chi^2 = 3.7770, df = 3, P = 0.2874$

3) 特産物에 대한 態度分析

(1) 價 格

일본인 觀光客들의 特産物 價格에 대한 態度는 전체의 48.6%가 싸다고 응답했고 보통이 다가 44.6%이며 비싸다고 한 관광객은 6.8%에 불과했다. 이는 인화와 한화의 환율 때 문일 것이다. 싸다고 느낀 계층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64.3%, 20대 60.0%, 50대 45.7%가 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행 횟수별로 보면 처음 온 관광객의 50%가 싸다 고 응답했으며 2회 이상의 관광객중 45.5%가 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表 17> 참조.

<表 17> 特産物 價格에 대한 態度 (日本人)

횟수, 연령 가격	1 회	2회이상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계
싸 다	26(50.0%)	10(45.5%)	36(48.6%)	6(60.0%)	5(33.3%)	9(64.3%)	16(45.7%)	36(48.6%)
보 통	21(40.4%)	12(54.5%)	33(44.6%)	4(40.0%)	8(53.3%)	4(28.6%)	17(48.6%)	33(44.6%)
비 싸 다	5(9.6%)	—	5(6.8%)	—	2(13.4%)	1(7.1%)	2(5.7%)	5(6.8%)
계	52(70.3%)	22(29.7%)	74	10(13.5%)	15(20.3%)	14(18.9%)	35(47.3%)	74

$X^2 = 2.8762, df = 2, P = 0.2374$

$X^2 = 4.6932, df = 6, P = 0.5837$

(2) 包 裝

포장이 좋다고 느낀 관광객은 30.1%에 불과했고, 좋지 않다고 응답한 계층이 12.4%였 으며, 57.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포장은 본래 제품 파손을 방지할 뿐 아니라 운송을 편리하게 하며, 제품 차별화의 수단으로 효과적인 판매 촉진 도구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表 18> 참조.

<表 18> 特産物の 包裝에 대한 態度 (日本人)

횟수, 연령 포장	1 회	2회이상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계
좋 다	15(29.4%)	7(33.3%)	22(30.1%)	2(22.2%)	6(40.0%)	3(21.4%)	11(31.4%)	22(30.1%)
보 통 이 다	31(60.8%)	11(52.4%)	42(57.5%)	5(55.6%)	8(53.3%)	9(64.3%)	20(57.1%)	42(57.5%)
좋 지 않 다	5(9.8%)	4(14.3%)	9(12.4%)	2(22.2%)	1(6.7%)	2(14.3%)	4(11.5%)	9(12.4%)
계	51(70.8%)	22(29.2%)	73	9(12.3%)	15(20.5%)	14(19.2%)	35(47.6%)	73

$X^2 = 0.5237, df = 2, P = 0.7695$

$X^2 = 2.3779, df = 6, P = 0.8817$

(3) 디자인

민속공예품의 디자인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27.4%가 좋다, 64.4%는 보통이다. 8.2%는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좋지 않다고 느낀 계층 중에서 처음 온 관광객이 83.3%나 되었는데 앞으로 민속공예품의 디자인 개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表 19> 참조.

<表 19> 特産物의 디자인에 대한 態度 (日本人)

횟수, 연령 디자인	1 회	2 회이상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계
총 다	15(29.4%)	5(22.7%)	20(27.4%)	1(10.0%)	3(20.0%)	5(35.7%)	11(32.4%)	20(27.4%)
보통이다	31(60.8%)	16(72.7%)	47(64.4%)	7(70.0%)	11(73.3%)	8(57.1%)	21(61.7%)	47(64.4%)
좋지 않다	5(9.8%)	1(4.6%)	6(8.2%)	2(20.0%)	1(6.7%)	1(7.2%)	2(5.9%)	6(8.2%)
계	51(69.9%)	22(30.1%)	73	10(13.7%)	15(20.5%)	14(19.2%)	34(46.6%)	73

$\chi^2 = 1.1082, df = 2, P = 0.5746$

$\chi^2 = 4.4265, df = 6, P = 0.6192$

第 4 節 特産物 開發可能性 檢討 (자리젓제품을 중심으로)

자리돔(Damel fish)은 본래는 아열대의 어류인데 제주도 연안에 정착하여 많이 번식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의 거문도에서 조금 잡히는 것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만 어획되는 특산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 소득원으로서의 자리젓제품을 제주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산물로서의 상품가치와 그 제품에 대한 충분한 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또한 이 제품의 생산을 담당할 농가나 어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경영이 가능하며 제품생산 및 제조공정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경기변동에의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등이 있어야 한다.

(1) 特産物의 要件 分析

특산물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要素에 대한 應答은 전체 응답자 196名중 73%인 143名이 그 지방 特殊性 즉 향토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적당한 價格 19.9%, 디자인 4.1%, 휴대 간편 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여행 횟수별로 分析해 보면 1회가 71.1%, 2회가 73.9%, 3회가 77.8%로 여행은 횟수가 많은 관광객일수록 더욱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제주에 관광을 오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民俗工  
藝品이나 特産物을 購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濟州地域 이외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향  
토성이 풍부한 특산물 개발이 필요하다 <表 20> 참조.

<表 20> 特産物의 要件

가장 중요 여행 횟수	지방 특이성	디자인	적당한 가격	휴대 간편	계
1 회	81 (71.1%)	6 (5.3%)	22 (19.3%)	5 (4.3%)	114
2 회	34 (73.9%)	2 (4.3%)	10 (21.8%)	-	46
3 회 이상	28 (77.8%)	-	7 (19.4%)	1 (2.8%)	36
계	143 (73.0%)	8 (4.1%)	39 (19.9%)	6 (3.0%)	196

$$X^2 = 4.2182, df = 6, P = 0.6471$$

그런데 자리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잡히는 어종이므로 자리젓제품은 濟州特産物로서 소비자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市場性 分析과 標的市場 選定

자리젓제품을 제주 특산물로서 판매했을 때의 市場性을 알아보기 위해 젓갈류를 좋아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 좋아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8%나 있었고 특히 50대가 (68.2%)  
가장 좋아하고 있었으며, 20대가 56.2%, 30대가 55.4%로 나타났다. 여자 (54.4%)보  
다는 남자(55.0%)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싫어하는 계층도 남자(21.0%)  
가 여자(19.1%)보다 더 많았다 <表 21> 참조.

<表 21> 젓갈류의 選好度

구 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계	20 대	30 대	40 대	50 이상	계
좋 아 한 다	71 (55.0%)	37 (54.4%)	108 (54.8%)	59 (56.2%)	27 (55.6%)	8 (40.0%)	15 (68.2%)	109 (55.6%)
그저그렇다	31 (24.0%)	18 (26.5%)	49 (24.9%)	24 (22.8%)	14 (28.6%)	6 (30.0%)	4 (18.2%)	48 (24.5%)
싫 어 한 다	27 (21.0%)	13 (19.1%)	40 (20.3%)	22 (21.0%)	8 (16.3%)	6 (30%)	3 (13.6%)	39 (19.9%)
계	129	68	197	105	49	20	22	196

$$X^2 = 0.1817, df = 2, P = 0.9132$$

$$X^2 = 4.3952, df = 6, P = 0.6234$$

(3) 자리에 대한 認識度

자리라는 고기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연령별로 알고 있는 계층은 50대가 42.9%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9.5%, 30대가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여행온 횟수별로는 처음 온 관광객이 26.9%, 2회가 37.8%, 3회 이상이 62.9%가 알고 있어 여행온 횟수가 많을수록 자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리젓 제품은 여행 횟수가 많은 消費者를 대상으로 관광상품화해도 매우 유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자리를 알고 있는 관광객이 37.2%나 되고 있기 때문에 製品 販賣를 위한 販賣 促進이 단기간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表 22> 참조.

<表 22> 자리에 대한 認識度

구분	성 별		계	연 령 별				계	여행 횟수별			계
	남	여		20	30	40	50		1회	2회	3회 이상	
알고 있다	51 (38.9%)	22 (33.8%)	73 (37.2%)	39 (37.5%)	17 (34.7%)	7 (33.3%)	9 (42.9%)	72 (36.9%)	32 (26.9%)	17 (37.8%)	22 (62.9%)	71 (37.7%)
잘 모르 고 있다	80 (61.1%)	43 (66.2%)	123 (62.8%)	65 (62.5%)	32 (65.3%)	14 (66.7%)	12 (57.1%)	123 (63.1%)	87 (73.1%)	28 (62.2%)	13 (37.1%)	128 (64.3%)
계	131	65	196	104	49	21	21	195	119	45	35	199

$X^2 = 0.4806, df = 1$

$X^2 = 0.5531, df = 3$

$X^2 = 15.3566, df = 2$

(4) 자리젓을 먹어본 경험

자리젓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나의 질문에서는 50대(20%)가 가장 많았고 20대(15.8%)가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여행 횟수별로는 3회 이상 온 관광객이 62.9%가 맞본 경험이 있다고

<表 23> 자리젓을 먹어본 경험

성별·연령·횟수	성 별			연 령 별					여행 횟수별			
	남	여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회	2회	3회 이상	계
먹어본 경험이 있다	19 (59.4%)	13 (40.6%)	32	16 (15.8%)	7 (14.9%)	3 (14.3%)	4 (20%)	30 (15.7%)	32 (26.9%)	17 (37.8%)	22 (62.9%)	71 (35.7%)
경험이 없다	110 (85.3%)	53 (80.3%)	163 (83.6%)	85 (84.2%)	40 (85.1%)	18 (85.7%)	16 (80%)	159 (84.1%)	87 (73.1%)	28 (62.2%)	13 (37.1%)	128 (64.3%)
계	129	66	195	101	47	21	20	189	119	45	35	199

$X^2=0.7857, df=1, P=0.3754$     $X^2=0.3286, df=3, P=0.9545$     $X^2=11.1635, df=2, P=0.0038$

\*\*\*  $P < 0.01$

응답했고 2회 37.8%, 1회는 26.9%로 여행은 횟수가 많을수록 자리젓을 먹어본 비율이 더 높았다 <表 23> 참조.

(5) 자리젓 購入意思 分析과 商品化方案

자리젓이 商品化되었을 때 購入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36명의 觀光客 중 47명(35%)이 購入하겠다고 희망하였는데 이는  $\alpha = 0.01$  수준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리젓을 구입하겠다고 應答한 47名중 39名이 제시한 적정가격은 2,500원이 9名(23.1%), 5,000원이 7名(17.9%), 2,000원이 5名(12.8%)인데 평균가격은 2,815원으로 分析되었다 <表 24> 참조.

<表 24> 자리젓 구입의사 분석

구입의사 \ 연령	연령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있 다	24	16	3	4	47
없 다	81	7	1		89
계	105	23	4	4	136

$\chi^2 = 29.2871, df = 3, P = 0.0000$

\*\*\*  $P < 0.01$

'84년부터 안덕면 사계리에서 생산된 자리젓 제품이 공항 토산품점을 통해 2년간 매년 432kg씩 판매된 실적이 있으므로, 자리젓에 대한 조리법을 적은 설명서와 양념을 별도로 첨가하고 선물용으로 적당한 용기와 포장을 하면 특산물로서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실증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수가 적었고 질문 항목도 제한되어 있어서 자리젓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방안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第五節 特産物의 生産 및 流通上의 問題點과 對策

(1) 生産上의 問題點

제주도 特産物 중 民俗工藝品인 경우 郷土性 있는 特産物 開發이 매우 미흡하다. 또한 生産業體가 영세하여 대부분 家内手工業的 性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製品과 디자인 開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内·外國人 觀光客이 가장 選好하는 돌하르방인 경우에도 현무암과 속돌로 만든 自然石製品, 人造石, 호마이카製品 등 그 種



類가 60여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粗惡한 製品이 流通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標準化, 等級化의 實施가 필요하다. 또한 季節別, 顧客別 등 市場細分化에 의한 特産物 開發이 필요하며 처음은 觀光客뿐만 아니라 2회 이상인 觀光客들도 購入할 수 있도록 新製品開發과 디자인 指導,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포장개발 등 다각적인 支援體制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流通上의 問題點

特産物の 流通上의 問題點으로는 높은 流通 마진과 土産品 販賣業所의 顧客誘致 및 販賣競争으로 斡旋手数料를 支給하는 사례와 불량 토산품 유통을 들 수 있다.

'86年 6月 10~11日 사이 전국주부교실연합회 제주지부에서 총 28개 토산품점을 대상으로 주요 특산물 8개제품 價格 調査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일한 土産品인데도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價格差異가 최하 1,500원(자연석 돌하르방 5호)에서 최고 16,000원(스데미너 800g)이나 되었고, 또한 '86年 9월 1일 濟州商工會議所에서 民間團體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商品去來 秩序確立 및 觀光 阻害要因을 是正하기 위한 觀光商品公正去來 推進委員會 議資料로 제시한 濟州에서 生産되는 主要 土産品の 生産者 價格과 消費者 價格 마진率이 (산호 파이프 9.2cm; 166.7%, 소나무 남박 20cm 정도; 133.3%, 목각 하르방 30cm; 123.8%, 현무암 돌하르방 20cm; 122.2% 등) 平均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表 25>와 같이 副業園地 製品인 경우 生産者 價格과 消費者 價格의 마진率이 높아 觀光客들의 不滿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觀光이미지 개선과 특산물 販賣促進을 위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特産物 중 민속공예품 가격에 대한 조사는 주요 민속공예품과 부업단지 제품을 중심으로 공항 및 자연사박물관 내 토산품점을 비롯한 제주시내 소재(14개소) 토산품점과 성읍민속촌(1개소), 만장굴(1개소), 성산일출봉(2개소) 등에 있는 18개소 토산품점 및 판매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돌하르방인 경우에는 조사대상 토산품점에 모두 진열이 되어 있었으나 副業園地 製品인 경우 생산 제품중 일부 품목만 진열돼 있었고 판매가격도 생산자 가격과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土産品店이 가격표시제지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만 표시되어 있었다 <表 25> 참조.

〈表 25〉 副業團地 製品的 價格과 陳列實態

제 품	진열점포수	생산자 가격	표시가격 평균
· 띠제품 부채 핸드백 (大)	8개소 (44.4%) 8개소 (44.4%)	1,500 원 —	3,063 원 10,375 원
· 목각제품 남박 (中) 솔박 (中)	8개소 (44.4%) 8개소 (44.4%)	5,000 원 5,000 원	8,750 원 7,250 원
· 정동제품 모자 (남)	10개소 (50.6%)	9,000 원	11,600 원
· 털구슬제품 지갑 (1호) 목침 (조립식)	5개소 (27.8%) 3개소 (16.7%)	4,000 원 7,000 원	9,200 원 12,667 원
· 넝쿨제품 삼태기 연필꽂이	3개소 (16.7%) 2개소 (11.1%)	1,500 원 500 원	3,400 원 900 원
· 죽제품 차롱 (大) 아기구덕	3개소 (16.7%) 3개소 (16.7%)	4,000 원	6,666 원 9,333 원

※ ( )의 비율은 조사대상 토산품점 18개소중 진열된 비율임.

(3) 行·財政 支援方案 및 對策

行·財政 支援方案 및 對策으로 民俗工藝品에 대한 新製品 및 디자인 開發 支援과 優秀民俗工藝品 製造業體에 대한 융자금 지원시 담보물 감정가격 전액을 융자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濟州의 傳統民藝品 발굴과 觀光商品化를 위한 開發支援(例, 유채짚과 감꿀짚을 濟州特産物로 指定 販賣) 및 자리것製品 開發에 따른 支援이 必要하며, 특히 外國人(日本人觀光客)들을 위한 特産物 開發이 필요한 실정이다.

優秀土産品の 生産과 流通을 효과적으로 誘導하기 위한 方案으로 가칭 “特産物 流通審議委員會”(關聯 行政機關, 民俗工藝品組合, 消費者 保護團體, 其他 專門家로 構成)를 設置하여 優秀土産品에 대한 檢査表 부착과 이에 대한 弘報活動을 실시해야 하며 副業團地製品과 特産物을 共同販賣하는 共販場을 設置·運營하고 定期觀光코스로 指定할 必要가 있다.

價格表示制 定着을 위해서는 강력한 行政指導와 關聯業所 擔當者 教育을 強化해야 하고 이

와 병행하여 價格表示制 優秀土産品店에 대한 財政上 惠澤도 강화해야 한다(例, 價格表示制 優秀土産品店에 대한 支援資金 貸出擴大), 또한 일부 주요 特産物을 대상으로 正札制導入을 檢討하고 濟州特産物에 대한 弘報를 強化하기 위해서 民藝品競進大會 開催時期와 場所를 觀光 盛需期와 主要 觀光地에서 實施하는 등 다각적인 對策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表 26〉 特産物の 問題點과 行·財政 支援方案 및 對策

문 제 점	행·재정 지원방안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성이 있는 특산물 개발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공예품의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특히, 부업단지 제품)</li> <li>○ 제주의 전통민예품 발굴 및 관광상품화 개발 지원 (유채짚과 감팔짚을 제주 특산물로 판매)</li> <li>○ 자리짚 製品 개발 지원(부업단지 지정 및 기술 지원)</li> <li>○ 제주특산물중 외국인(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특산물 개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들의 특산물 디자인과 포장에 대한 불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산물의 디자인, 포장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디자인포장센터 지도횟수 확대, 디자인 지도를 위한 전문적 상설기구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토산품 유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토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산물유통심의위원회(관련 행정기관, 민속공예조합, 소비자 보호단체 기타 전문가로 구성)에서 우수 토산품에 대한 검사표 부착 및 이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산물 유통 마진의 과다에 따른 관광객의 판매가격에 대한 불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업단지 및 특산물 공판장 설치로 가격지도 제 효과 기대 (정기 관광코스로 지정)</li> <li>○ 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관련업소의 담당자 교육 강화</li> <li>○ 가격표시제 우수 토산품점에 대한 재정상의 혜택 강화 (예, 가격표시제 우수업체 지원자금 대출확대검토)</li> <li>○ 일부 주요특산물의 정찰제 도입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특산물에 대한 홍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특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방안을 다각적 검토 (예, 민예품 경진대회 개최장소 및 시기를 관광성수기에 주요 관광지에서 실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민속공예품 제조업체 재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민속공예품 제조업체에 융자금 지원시 담보불 감정가격 전액 융자방안 검토</li> </ul>

## 第VI章 濟州道 加工工場의 現況과 擴充 可能性 摸索

### 第1節 調査의 概要

道内の 加工工場 現況과 擴充가능성 分析은 農家에서 生産되는 農産物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農産物의 安定的 需要處가 되며 農家に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農業所得과 農外所得 增大에 기여하고 있는 감귤加工工場(3 個所), 야채가공공장(3 個所), 고구마 澱粉工場(15 個所)과 원료를 주로 바다에서 채취하여 가공하고 있는 해초 가공공장(2 個所)을 중심으로 7 月부터 11 月에 걸쳐 직접 방문 調査를 실시하였다.

### 第2節 加工工場의 現況

#### 1. 柑橘加工工場

濟州 柑橘의 生産量은 <表1>에서와 같이 1985 년에 들어와 총 394,300 톤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粗收益도 1,242 억원에 이르러 濟州 農家經濟에 가장 중요한 지배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表1> 柑橘 一般現況

區分 年度	植 栽 面 積 (ha)	生 産 量 (%)	處 理 內 容(%)				農 家 受 取 價 (3.75kg)	栽 培 農 家 數 (戶)	粗 收 益 (百 萬 元)
			商 品		加 工	其 他			
			系 統	一 般					
'80	14,094.5	187,470	14,068	139,978	23,798 (12.7%)	9,626	985	19,996	54,500
'81	15,000	247,780	26,216	179,707	22,740 (9.2%)	19,117	1,137	20,545	78,400
'82	15,499	323,420	61,430	203,190	44,159 (13.7%)	14,641	1,041	20,645	100,903
'83	16,975	345,900	107,269	188,042	33,059 (9.6%)	17,530	802.5	23,182	74,044
'84	16,975	261,000	28,553	193,779	23,810 (9.1%)	14,858	1,668.75	23,182	115,582
'85	16,969.5	394,300	80,688	232,353	65,659 (16.7%)	15,600		23,332	124,189

※ ( )는 전체 감귤 생산량중 加工용으로 처리된 비율임.

資料: 제주통계연보(1986년)

그러나 柑橘의 안정적 수요가되는 加工處理實績은 보아 柑橘 生産量에 따라 매년 달라져 전체 生産량의 9.2%~16.7%까지 매우 불규칙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濟州道内 소재 감귤가공공장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태음료와 롯데 그리고 대한종합식품 3個 工場이 있는데 이 3個 감귤 가공공장의 연간 처리능력은 총 44,500t (263t/일) 이고, 주요 가동시기는 감귤수확기인 11월 초에서 3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의 임시 종업원 고용수는 총 596명~857명 정도로 農家の 農外就業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종업원들의 하루 유동인원이 3個工場 平均 83名이나 되어 작업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生産農家の 加工用 柑橘에 대한 취급 소홀과 감귤의 장기간 저장에 곤란하므로 단기간내에 加工 處理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表2> 濟州道内 柑橘加工工場 現況

구 분		해 태 음 료	로 트 데	대 한 종합식품
주요 가동시기 임시 종업원 수	남	70—80명	120명정도	6—7명
	여	200—250명	300명정도	100명
	계	270—330명	220—420명	106—107명
임시종업원의 거주지		서귀포 — 대정	남원 — 성산	제 주 시
연간 처리능력		20,000t (160)	20,000t (170)	4,500t (35)
작업시 종업원의 유동인원		100명	100명	50명
생산제품 형태		반제품(농축액)	반제품(농축액)	최종소비재(알알이)

또한 감귤 가공공장의 가동은 원료수매의 계절적 요인으로 가동율이 매우 저조하며, 감귤의 해결이 현상에 의해 生産량이 많아지면 加工用 출하가 많아지고, 감귤 출하량이 적어서 감귤 가격이 좋은 시기엔 농가의 가공용 출하기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농외취업 기회의 확대와 안정된 감귤 수요 기반확충 및 감귤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의 농가 환원으로 제주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감귤 加工工場의 道内 확충은 매우 절실한 政策課題라 할 수 있다.

## 2. 야채 가공공장과 해초 가공공장

### 1) 야채가공공장

道内 야채 가공공장 實態調査는 동신산업(행원공장), 제주농수산, 흥신농산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3個 工場들은 모두 비교적 제주에서 많이 生産되고 있는 채소류인 마늘, 양파, 당근 등을 生産時期別로 生産農家로부터 직접 收買하여 加工 處理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채소의 육지부 작황에 따라 原料 收買價格이 달라지며, 加工製品의 販賣도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된 판로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3個工場이 모두 農村地域에 위치하고 있어 채소류를 生産하고 있는 인근 農家의 안정적 수요처가 되고, 農外就業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2) 해초가공공장

해초 가공 공장은 태림상사와 협신식품을 중심으로 調査하였다. 태림상사인 경우 年中 加工日數는 加工原料의 확보량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어 84年度에는 2個月뿐이었고, 85年度에는 3個月, 86年度에는 5月~9月까지 4個月이었다. 또한 生産製品의 全量을 日本으로 수출하고 있어 製品 販賣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原料調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신식품인 경우에도 生産된 製品 全量을 日本으로 수출하고 있어 販賣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原料 調達이었다.

3. 澱粉 加工工場

澱粉은 물엿, 포도당, 麵類, 製藥用 등의 食料資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接着劑, 製藥用 등 非食品 分野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必須資材이다. 오늘날 澱粉은 약 2,0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澱粉産業이 他産業에 미

〈表 3〉 澱粉 需給動向

(단위 : %)

年度別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區分							
需 要 (A=B+C)		234,561	273,710	332,490	347,957	460,937	514,457
生 産	고구마澱粉	15,420 (6.7%)	21,730 (8.2%)	19,693 (6.1%)	17,650 (5.2%)	15,585 (3.5%)	18,500 (3.7%)
	감자澱粉	333 (0.1%)	53 (-)	22 (-)	130 (-)	1,300 (0.3%)	1,491 (0.3%)
	옥수수澱粉	209,841 (91.4%)	234,543 (88.7%)	292,743 (90.5%)	279,500 (88.8%)	432,000 (96.2%)	478,000 (95.9%)
	小麥澱粉	4,114 (1.8%)	8,030 (3.0%)	10,930 (30.4%)	19,855 (6.0%)	350 (0.0%)	600 (0.1%)
計 (B)		229,708	246,356	323,388	337,135	449,235	498,591
輸 入 (C)		4,853	9,354	9,102	10,822	11,702	15,866
國內自給率(B/A)		97.9%	96.6%	97.3%	96.9%	97.5%	96.9%
海外依存度(C/A)		2.1%	3.4%	2.7%	3.1%	2.5%	3.1%

資料 : 韓國澱粉工業協同組合

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된다. 또한 澱粉의 主原料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小麥粉 등 농산물이므로 澱粉産業은 農家所得 增大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加工産業의 하나라 하겠다.

그런데 經濟成長에 따라 1985年 國內 澱粉 需要는 <表3>에서와 같이 총 514,457%으로 1980년에 비해 219.3%나 증가하였고, 이 기간의 澱粉 수입도 1980년 보다 327.3%나 증가하였으며 85년 澱粉의 國內 生産 自給率은 96.9%이었다.

1985年末 現在 全國의으로 고구마 澱粉工場이 53개, 감자 澱粉工場이 5개 그리고 옥수수 澱粉工場 5개, 小麥粉 澱粉工場 1個所, 總 64個所가 있다.

그런데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全國의으로 계속 工場數가 감소해 가고 있는 고구마 澱粉工場의 地域別 분포를 보면 <表4>와 같이 85년 稼動된 全國 53個 고구마 澱粉工場중 濟州道內에는 總 45個(84.9%)가 있어 全國 고구마 澱粉 生産量 18,500t 중 86.7%에 달하는 16,033t을 生産하였고, 그외의 지역으로는 全北과 全南이 각각 4개 工場이 있을 뿐이다.

<表4> 연도별 澱粉工場 수

(1985년 12월말 현재)

연 도	고 구 마	감 자	옥 수 수	소 맥 분	계
1975	114	6	5	-	125
1976	102	13	8	2	125
1977	85	1	8	2	96
1978	79	-	8	2	89
1979	67	1	8	2	78
1980	65	1	7	2	75
1981	67	1	6	1	75
1982	67	1	7	2	77
1983	62	4	5	1	72
1984	60	4	5	1	70
1985	53 (45)	5 (1)	5	1	64 (46)

※ ( )안은 濟州道の 澱粉工場 數 임.

資料: 韓國澱粉工業協同組合

우리나라의 澱粉産業은 60年代만 하더라도 國內原料인 고구마 澱粉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저렴한 도입 옥수수에 의한 옥수수 澱粉産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앞의 <表3>에서와 같이 1985年度에는 우리나라 澱粉 總 生産量이 498,591%인

데, 이 중에서 고구마 澱粉이 차지하는 비중은 81年以後 계속 줄어 3.7%에 불과하였고, 옥수수 전분은 95.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옥수수 澱粉의 占有率이 증가한 理由는 옥수수가 고구마에 비하여 貯藏性이 높고 年中 稼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表5>에서 처럼 原料價格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導入 옥수수에 의한 옥수수 전분에 비해 고구마 澱粉의 競爭力이 약하다고 해서 國內 生産原料를 주로 이용하여 稼動되고 있는 고구마 澱粉工場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제주도 내에 45개의 고구마 澱粉工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은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表5> 년도별 고구마 澱粉과 옥수수 澱粉의 價格動向

구 분 년 도	고 구 마	옥 수 수	비 고
1980년	501 (1,879 )	282.18 (1,058.17)	56.3%
1981년	787.77 (2,954.13)	385.45 (1,445.43)	49.1%
1982년	673.31 (2,524.91)	290.13 (1,087.98)	43.1%
1983년	656.70 (2,462.62)	240.15 ( 900.56)	36.6%
1984년	667 (2,501.25)	240.13 ( 900.50)	36.0%
1985년	845.50 (3,170 )	254.18 ( 953.17)	30.1%
1986년 3월말	640 (2,400 )	236.36 ( 886.35)	36.9%

※ ( )는 관당 가격임. 단위; kg당, 원

資料; 韓國澱粉工業協同組合

道內 고구마 澱粉工場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는 需要處 減少로 인한 販賣不進을 들수 있다. 1986年度 11月 商工會議所 澱粉業體 實態調查 結果에 따르면 85년 生産된 澱粉의 在庫量이 (조사대상인 22個 工場中 8개 工場)이 1,189t (7.4%)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계절적인 고구마 澱粉生産으로 原料購入 및 製品 販賣資金의 需要가 일시에 집중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며, 고구마 澱粉生産이 2~3個月 사이에 집중되는 관계로 生産期에 홍수출하로 인한 製品價格의 하락현상의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澱粉工場의 전기요금은 産業用으로 適用하므로써 부담이 가중되어 農業用으로 轉換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調査에 의하면 86年 稼動된 澱粉加工工場은 廢水處理의 基準 強化로 85년 基準 20%에 달하는 9個 澱粉工場이 休業하여 36個所였다.

그런데 그중 7個 工場은 廢水處理基準 未達로 지적되어 실제 稼動工場은 현재 29個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廢水處理基準 強化는 그 施設 준비기간이 85年~86年 2年밖



에 되지 않아 施設投資 過多로 인하여(商工會議所 資料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2個 工場의 廢水處理施設 投資額이 平均 7,500 萬원으로 1個 工場 平均 年間 賣出額 1억 8천만원의 41.7%나 投資하였음) 資金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濟州는 環境保全法의 施行規則에 의하면 4 군데의 淸淨地域(농포, 고산, 하도, 깍지)과 그 외에는 모두 “가”地域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表 6>에서와 같이 日本 澱粉工場의 排水基準 보다도 높다. 그러나, 고구마 澱粉工場이 濟州道內 全域에 立地하여 主要 稼動時期인 10월~3월말까지 20~50명의 남·여 임시 종업원을 인근 부락에서 고용하고 있으므로 고구마 澱粉工場의 休·廢業으로 인한 農家의 농외취업기회 상실과 영세소농이 대부분을 이루는 고구마 生産農家의 보호와 막대한 유희설비 등을 고려하여,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약 10年間に 걸쳐 許用基準을 적용한 日本의 사례처럼, 道內 고구마 澱粉工場의 廢水處理基準을 단계적으로 適用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表 6> 韓國과 日本의 澱粉工場 排水基準

항목(가지역)	국 가		허 용 기 준		비 고
	한국	일본	일간평균	최 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BOD/PPm )	한국		100		하천에 방유탈 시
	일본		일간평균	120	
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PPm )	한국		100		바다, 호반에 방유탈 시
	일본		일간평균	120	
부 유 현 독 물 질 ( SS/PPm )	한국		100		
	일본		일간평균	150	
수 소 이 온 농 도 ( PH/ )	한국		5.8~8.6		
	일본		하 천	5.8~8.6	
			바 다	5.0~9.0	

韓國資料：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日本資料： 澱粉工場의 排水規則

### 第 3 節 加工工場의 擴充 可能性

#### 1. 柑橘 加工工場의 擴充 可能性

柑橘 加工工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柑橘 가공품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市場需要가 충분해야 하고 成長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

개방으로 良質이며 低價의 감귤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消費地와 가까운 지역에 柑橘 加工工場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육지부에 위치한 기존 加工工場들의 시설확충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柑橘 加工工場의 확충 가능성도 道 내에서 생산된 加工用 감귤수매량 전량을 제주에서 加工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감협,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 加工工場을 설립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시설규모, 소요자금 및 손익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자금조달 능력, 企業性을 면 가공업체와의 경쟁가능성, 稼動日數가 120 일 정도인데 막대한 시설을 어떻게 연중 稼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研究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야채 및 해초 가공공장 擴充 可能性

해초 가공공장은 원료조달이 자연환경에 의존해야 하며 인근 해역에서의 대량양식이 곤란하여 해초 가공공장들의 확충을 위해서는 원료조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야채 加工工場들도 가공처리 작물의 육지부 작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판매가 문제이며, 제주가 主要 生産地로 되어 있고 비교 우위에 있는 농작물의 加工食品 개발을 통한 확충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충분한 시장여건과 事業性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고구마 澱粉工場의 擴充 可能性

濟州에서 生産되고 있는 고구마 澱粉은 大元農産과 貴日産業社를 제외한 그 外의 生産澱粉은 모두 육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澱粉生産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당면과 냉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면(濟州 용천산업 제품이 생산 유통되어 道内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음)을 제외한 상당량의 전분 관련제품이 다시 濟州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7>에서 보듯이 85년말 현재로 당면공장이 全國에 총 58개소가 있는데 평균가동율이 98.5%에 이르고 있어 당면에 고구마 전분함유량을 적정수준(예, 30% 정도)만 유지해도 이는 고구마 澱粉工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澱粉生産業者들과의 면접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流通되고 있는 당면의 고구마 전분함유량이 수출용을 제외하고 대체로 5% 이하이며, 실제로 관련제품(예, 당면)에 과대·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必要하다.

所得水準이 높아감에 따라 消費者들의 식품소비도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에 반해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加工食品의 品質하락은 오히려 그 시장을 점차 더욱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生産原價 절감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적정수준에서 관련제품의 고구마 전분의 함량을

높혀 良質의 製品生産이 이뤄지면 需要도 증대될 것이며 고구마 전분공장의 확충도 가능할 것이다.

〈表 7〉 唐麵工場 分布 및 年間 生産能力과 稼動率 推移

(1985년 12월말)단위: 톤

구분 지역	공 장 수	생산능력	가 동 율	비 고
서 울	4	2,900 톤	99 %	화양식품 포함. 대립종합식품은 제외
경 기	10	11,950 톤	99 %	
충 남	11	15,600 톤	98.5 %	
충 북	1	650 톤	98.5 %	
강 원	2	1,300 톤	98 %	이리 유성당면 제외
전 북	5	5,580 톤	99 %	
전 남	3	2,100 톤	99 %	
경 북	10	7,900 톤	99 %	
경 남	11	9,200 톤	99 %	1 개 공장 제외
계 주	1	500 톤	95 %	
계	58	57,680 톤	98.5 %	제품 생산량(능력) 56,815 톤( 15,150,670 관)

資料: 韓國 澱粉工業協同組合

〈表 8〉 고구마 澱粉工場의 擴充을 위한 課題와 解決方案

課 題	解 決 方 案
○ 고구마 전분공장 가동율 제고	○ 고구마 전분공장에 옥수수, 감자 전분 가공시설 추가(가동율 제고의 경제성과 원료 수송비의 비경제성 고려, 전분 수요 증가에 따른 파인시설 초래 않는 범위 고려)
○ 고구마 전분의 원료비 절감 (고구마의 수율 저조)	○ 고구마 수율 향상을 위한 고구마 신품종 개발 (출하시기 연장)
○ 고구마 전분의 수요 증대	○ 상품 제조면에서 옥수수 전분과 경쟁 우위에 있는 당면제조용 전분은 최소한 고구마 전분의 함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또 다른 고구마 전분공장의 확충 가능성은 고구마 가공공장의 연중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 1개소를 제외한 고구마 가공공장이 재래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자 및 옥수수 전분 가공을 함께 가공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表 8〉참조.

## 第七章 農工地區의 開發可能性

### 第1節 濟州道 農工地區 開發의 基本方向

農漁村地域 工業開發促進地區의 약칭인 農業地區의 조성은 1983年 12月에 제정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과 84年 5月에 公布된 同法 施行令에 의해 農漁村地域의 所得增大와 所得構造高度化 및 濃漁村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核心事業의 하나로 規定되고 있다.

農工地區의 구체적인 定義는 法令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郡地域 및 人口 10萬이하의 市地域을 대상으로 1~2萬坪의 工業地域을 조성하여, 入住業體에 대한 金融, 稅制, 技術支援 등을 강화함으로써 農漁村地域에 工業導入을 促進하는 것”<sup>1)</sup>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農工地區 造成施策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農村工業 育成施策인 새마을工場이 大部分 大都市週邊이나 高速道路週邊에 위치하여 農外所得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道路用水 등 社會間接施設과 勞動力供給, 金融機構 및 技術情報의 接近度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散在立地하여 一部 不實을 면치 못했던 점에서 구상된 것이다.

農工地區는 立地形態, 規模, 位置, 業種 및 支援施策에 있어서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마을工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農工地區는 새마을工場과는 달리 農村中心都市의 工團造成으로 都市 및 海外指向 工業部門의 5~10個의 工場을 유치하여 綜合적으로 支援함으로써 農村人口의 地方定着과 都市工業의 地方分散을 통한 農外所得增大와 農業構造改善으로 農村地域의 經濟社會基盤을 강화하며, 都市, 農村問題의 누적적 惡循環을 극복하여 長期的으로 經濟成長과 國土의 均衡開發을 통한 衡平을 동시에 실현하는 效果的인 政策手段으로 提示되고 있다.

1) 金英泰(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長), 農漁村 所得源 開發政策의 推進背景과 基本方針,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方向(政策協議會 시리즈 2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p.14.

<表 1> 農工地區와 새마을 工場과의 差異點

구 분	새 마을 공 장	농 공 지 구
입 지 형 태	分散立地	工團立地
規 模	1 個工場	5 ~ 10 個 工場
位 置	邑 · 面 單位	農村中心都市
業 種	農家工產品工業, 農家副業製品	都市 및 海外指向工業
支 援 策	部分的 支援	綜合的 支援

이와같은 農工地區 造成施策의 基本方向에 비추어 볼 때 濟州道の 경우 만약 이를 推進한다면 먼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함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農工地區의 造成에는 1 個 地區만 하더라도 막대한 國家財政과 地方財源이 所要되기 때문에 限定된 資源의 극대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地域選定은 매우 중요하다.

農工地區의 우선 설치지역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法令의 규정에 의하면<sup>2)</sup> 工場用地로서의 適合性 與否, 用地確保의 容易與否, 各種 支援施設의 容易與否, 農漁家の 效果 및 農漁村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事項中에도 특히 濟州道の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力點事項은 農漁家の 所得增大 效果가 아닌가 본다. 그것은 다른 事項에 관한한 農村中心都市인 한림, 모슬포, 애월, 표선, 성산포, 세화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다지 큰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地帶間 農家所得의 衡平化를 위해서는 海岸地帶 零細小農의 所得源開發이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로 되고 있다. 또한 地域別로는 한림지역과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農家所得이나 農外所得이 低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農漁家の 所得增大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海岸地帶 零細小農들에게 農外就業機會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망에 비추어 地域間的 均衡發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림지역에 農工地區를 造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第 2 節 農外所得源으로서의 農工地區 造成

農工地區의 開發可能性은 農民側에서 보면 農産物의 安定된 需要基盤을 인근에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農外就業機會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진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本 調査結果에 의하면 農外就業을 원하는 農家は 전체 조사농가의 36.7%였고, 그중 약 80%의 농가가 通勤就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農家就業을 원하는 農

2) 農漁村 所得源開發促進法 施行令 第 7 條( 農工地區의 對象地域 )의 ②

家の 64.6%가 零細小農이었다. 그리고 農外就業으로서 바람직한 직업이라고 보는 것은 製造業이 34.4%, 都小賣業이 23.0%, 觀光서비스業이 18.0%, 建設業이 13.1%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農家들이 바라는 農外就業機會로서 農工團地の 造成이 觀光部門의 開發보다 우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근지역에 立地되기를 원하는 製造業은 農産物 加工工場이 79.1%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는 農機械수리공장 6.1%, 農業生産資材공장 4.7%, 工藝品工場 4.7%의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農産物 加工工場을 원하는 農家の 70.0%는 감귤, 12.8%는 고구마, 6.8%는 마늘의 加工工場 立地를 바라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農外所得源 가운데 農外就業機會를 제공하는 所得源으로서 農民의 通勤圈內에 農工地區의 造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農産物 加工工場들의 集團立地는 인근 농민들에게 農外就業機會만이 아니라 農産物의 안정된 需要處를 제공함으로써 農家所得增大에 획기적인 契機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農工地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第3節 農民들의 工場就業可能性

農工地區의 造成이 農家所得 增大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農民들이 어떤 형태로든 地區內에 유치된 工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成功的인 農工地區의 造成은 地區內에 입주하는 工場들이 필요로 하는 勞動力을 인근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農工地區의 造成과 관련하여 농민들 가운데 工場 就業可能人力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관한 分析을 要求한다. 農民들의 工場就業可能人力의 분석은 農民들의 工場就業意思와 現實的인 工場就業能力을 종합하여 파악해야만 한다. 그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農民들의 工場就業을 유도한다고 할 때, 그 一次的인 對象이 되는 農民은 公장에서 일할 意思만이 아니라 能力을 동시에 가진 人力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農民들의 工場就業意에 관한 分析은 먼저 취업의사의 有無를 확인하고, 취업의사가 있는 농민에게는 8개 항목의 就業時 不利한 條件을, 취업의사가 없는 농민에게는 8개 항목의 취업시 有利한 條件을 提示하여 農家の 工場就業意思의 정도를 階層化하였다. 즉,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동시에 불리한 8개 條件에도 상관없이 취업의사를 肯定적으로 나타낸 경우는 “적극적 취업의사”,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불리한 8개 條件에 대해서 否定的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소극적 취업의사”, 취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유리한 8개 조건에 대해서 肯定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는 “소극적 취업의사” 그리고 취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동시에 유리한 8개 조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否定的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취업반대의사”로 층화하였다. 이러한 층화는 Likert 尺度와 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공장취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없느냐를 區分하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농민들의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기능직 모집의 관행으로 볼 때, 현재 대부분의 경우 20~29세에 중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정책적 차원에서 공장 취업희망 농민에 대한 技術教育訓練을 실시한다고 할 때 그 대상에서도 연령과 학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40세 이상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사경험에 의해 높은 營農資質을 가지고 있고 직업적으로 安定期에 속한 연령층으로 계속하여 農業部門에 남아 있는 것이 社會的으로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연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능력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즉, 중졸 이상이며 40세 미만의 경우는 “높음”, 중졸미만이며 40세 미만의 경우와 중졸이상이며 40세 이상의 경우는 “중간,” 중졸미만이며 40세 이상의 경우는 “낮음”으로 農家家口主의 工場就業能力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工場就業意思와 工場就業能力의 分析方法을 토대로 農民들의 工場就業可能性은 <表2>와 같이 A, B, C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A는 積極的 意味의 工場就業可能農家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공장취업의사가 아니라 그 능력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B는 消極的 意味의 工場就業可能農家이다. 이에 속한 農家는 공장취업의사는 높지만 취업능력이 중간이거나 공장취업의사는 소극적이지만 취업능력은 매우 높은 농가 그리고 소극적인 취업의사와 중간 정도의 취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C에 속한 농가는 공장취업불가능 농가라 할 수 있다. 이에 속한 농가는 공장취업에 반대적인 의사를 갖거나 공장취업능력이 매우 낮은 농가로서 현실적으로 공장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表2> 공장취업 가능정도의 구분

공장취업의사	공장취업능력		
	높음	중간	낮음
적극적	A		
소극적		B	
반대			C

주: A: 적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

B: 소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

C: 공장취업 불가능농가

<表2>의 공장취업 가능정도의 구분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177호의 농가를 분석한 결과는 <表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대상농가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농가만이

적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A)로 판정되었고, 소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B)는 약 32.8%, 그리고 공장취업불가능농가(C)는 63.8%로 확인되었다.

〈表3〉 제주도 농가의 공장취업가능성 분석 결과  
— 제주도 177호 농가조사결과(1986) —

단위 : 호

공장취업의사	공장 취업 능력			계
	높 음	중 간	낮 음	
적 극 적	6 ( 3.4)	13 ( 7.3)	23 (13.0)	42 ( 23.0)
소 극 적	15 ( 8.5)	30 (17.0)	41 (23.1)	86 ( 48.6)
반 대	7 ( 3.9)	21 (11.9)	21 (11.9)	49 ( 27.7)
계	28 (15.8)	64 (36.1)	85 (48.0)	177 (100.0)

주 : ( ) 내는 전체 조사농가에 대한 百分比임.

경영경지 규모별로 공장취업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表4〉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적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의 대부분은 零細小農이지만 零細小農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5.1%에 불과하다. 소극적 의미의 공장취업가능농가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零細小農 가운데 그 비중은 약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4〉 제주도 농가의 규모별 공장취업가능성  
— 제주도 177호 농가조사결과(1986) —

단위 : 호

규모 \ 공장취업가능성	영세소농	중 농	대 농	계
적극적의미의 취업가능농가 (A)	5 ( 5.1)	1 ( 1.5)	—	6 ( 3.4)
소극적의미의 취업가능농가 (B)	25 ( 25.5)	29 ( 43.3)	4 ( 33.3)	58 ( 32.8)
(A + B)	30 ( 30.6)	30 ( 44.8)	4 ( 33.3)	64 ( 36.2)
공장취업 불가능농가 (C)	68 ( 69.4)	37 ( 55.2)	8 ( 66.7)	113 ( 63.8)
계	98 (100.0)	67 (100.0)	12 (100.0)	177 (100.0)

주 : ( ) 내는 百分比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농공지구의 구성에 의한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코져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與件과는 많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즉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농민들 특히 零細小農들의 공장취업가능성이 현실적으로 制限되어 있다는 事實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工場就業不可能農家에 대한



별도의 所得源開發施策을 併行하여 추진해야만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表4>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零細小農이라 하더라도 결코 同質的集團이 아니라 異質的 集團이며, 이러한 認識下에 農業政策도 農家中心의 農業政策 (farm-household oriented agricultural policy)으로의 轉換이 要請된다 하겠다. 즉, 零細小農이라 하더라도 脫農支援對象, 兼業農支援對象, 專業農育成對象 및 社會保障對象 등으로 구분하여 각 對象農家別로 별도의 支援對策을 마련해야만 長期的으로 福祉農漁村 建設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 第4節 農工地區造成時 立地妥當性 檢討基準

農村工業開發政策은 地域間의 均衡發展, 都農間의 不均衡 축소, 農村人口의 도시집중 억제 영세소농민의 農外所得增大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工場이 農村地域에 위치하였을때 企業의 경제성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落後된 農村地域의 開發을 위한 農村工業開發政策의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農村地域에 工場의 立地를 決定할 때 문제되는 立地決定 因子는 <表5>와 같이 工業人力 확보, 제품판매, 자재 수송, 도로 및 통신시설 미비, 工場부지 확보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表5> 農村地域 工場立地時 問題되는 立地因子

(단위: 個 %)

立地因子	業體數	比率
工業人力確保 困難	15	39.4
製品販賣 困難	7	18.4
工場 敷地確保 困難	2	5.3
製品 및 資材輸送 困難	5	13.2
用水 및 動力調達 困難	2	5.3
道路 및 通信施設 未備	3	7.9
企業情報 蒐集 困難	2	5.3
原料調達 困難	1	2.6
其他	1	2.6
計	38	100.0

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外所得政策의 基本問題와 새로운 接近, 1981.7.

또한 농공지구조성 후보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는 입주 희망업체가 많은 지역과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도로, 통신, 공업용수, 시설등 사회 간접자본 시

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인근에 공업단지가 없는 지역,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와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表 6> 참조.

<表 6> 農工地區 후보지선정 및 妥當性 檢討基準

道 후보지選定 및 우선순위 결정基準	經濟企劃院 妥當性 檢討基準
① 入住 希望業體가 많은 地域	① 交通條件 등 工業立地條件
② 用地確保가 용이한 地域	② 農家所得增大 效果
③ 造成費 및 下部構造 施設費	③ 入住展望 및 入住 希望業體
④ 勞動力 供給이 용이한 地域	④ 地區規模(農耕地, 林野比)
⑤ 隣近에 工團이 없는 地域	⑤ 地區造成費(用地買收價, 造成費, 坪當分讓價)
⑥ 國土利用管理法上 工業用地로 適合性	⑥ 工事與件(工事의 난이도)
⑦ 農漁家 所得增大	⑦ 住民의 열의
⑧ 農漁村 環境에 미치는 影響	⑧ 道の 추천순위
	⑨ 現地出張 報告

資料：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工地區 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1984.12.p.94.

### 第5節 農工地區 造成을 위한 提言

濟州道에서 農工地區를 造成할 경우 농가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중 특히 감귤 가공공장과 전분공장이 입주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도내 가공공장들 중에서 해초 가공공장인 태림상사와 농산물 가공공장인 대한종합식품, 고구마 전분공장인 대영산업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向後 濟州道에서 農工地區를 造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方向을 提示한다.

1. 農村地域에 造成될 農工地區에 工場을 誘致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입주 희망업체들의 대부분이 제주시 근교를 바라고 있으나 農工地區 造成의 기본시책인 地域間的 均衡發展과 都農間的 소득 불균형 축소, 영세소농의 農外所得 증대 등을 고려하여 農工地區 立地를 선정해야 한다.

3. 農工地區에 입주할 工場들의 業種은 可能하면 農民들이 희망하며, 長期的인 측면에서 農家所得과 農外所得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 우선적으로 誘致되어야 한다.

4. 農外所得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濟州道の 농외소득 구조실태로 보아 한림지역을 農工地區造成 후보지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立地의 妥當性에 대한 보완적 研究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5. 農民들의 취업의사 분석에서 제시된 대로 農工地區가 造成되어 工場이 稼動되어도, 상시 종업원으로 취업 가능한 農家는 제약되어 있어 農民이 아닌 통근 가능한 도시 근로자들의 취업이 예상되므로 農工地區에 入住한 工場 종업원들의 일정비율을 그 地域이나 인근 부락의 農家構成員 中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